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7  
에스더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에 스 더

## Esther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לְךָ כְּנֹס אֶת-כָּל-הַיְהוּדִים הַנִּמְצְאִים בְּשׁוּשַׁן וְצוּמוּ  
עָלַי וְאֶל-תְּאֲכְלוּ וְאֶל-תְּשִׁתּוּ שְׁלֹשֶׁת יָמִים לַיְלָה  
וַיּוֹם גַּם-אֲנִי וְנַעֲרֹתַי אֲצֹם כֵּן וּבְכֵן אָבוֹא אֶל-  
הַמֶּלֶךְ אֲשֶׁר לֹא-כִדַּת וְכֹאֲשֶׁר אֲבָדַתִּי אֲבָדַתִּי :

## 에스더 차례

---

에스더 서론 .....	〈13제〉	175
제 1 장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다 .....	〈16제〉	179
제 2 장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揀擇)되다 .....	〈20제〉	185
제 3 장 유다인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획 .....	〈16제〉	190
제 4 장 에스더의 각오 .....	〈17제〉	196
제 5 장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에스더 .....	〈16제〉	203
제 6 장 명예를 얻은 모르드개 .....	〈14제〉	207
제 7 장 하만의 몰락과 처형 .....	〈16제〉	211
제 8 장 유다인의 기쁨 .....	〈17제〉	215
제 9 장 유다인들의 보복과 부림절 .....	〈24제〉	220
제 10 장 아하수에로의 권세와 모르드개의 영광 .....	〈4 제〉	227

## 에스더 특별 자료 차례

---

에스더 서론 〈연구 자료〉 본서의 연대표 .....	178
제 1 장 〈본장의 요절〉 .....	183
제 1 장 〈연구 자료〉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은 와스디 .....	184
제 2 장 〈본장의 요절〉 .....	189
제 3 장 〈연구 자료〉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들 .....	194
제 4 장 〈화보 자료〉 금홀(金笏)을 내미는 아하수에로(Xerxes) 왕 .....	200
제 4 장 〈연구 자료〉 기독교인과 애국심 .....	201
제 5 장 〈본장의 요절〉 .....	206
제 6 장 〈화보 자료〉 모르드개의 행진 .....	210
제 7 장 〈본장의 요절〉 .....	214
제 8 장 〈화보 자료〉 반지 .....	219
제 9 장 〈연구 자료〉 페르시아의 수도(首都) 수사 .....	226
제 10 장 〈화보 자료〉 에스더의 양피지 두루마리 .....	228

# 에스더 서론

## 1. ㉠ 본서의 제목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제목은 본서의 내용에서 주역으로 나타나는 '에스더'의 이름을 따라 에스더로 붙여졌다.
- (2)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 (star)이라는 의미이다. 그녀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닷사>로 '아름다운 나무' 라는 뜻을 지녔다.
- (3) 그런데 에스더는 후일 왕후가 되어 아각 사람으로 아하수에로 왕 때 한동안 수상을 지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실패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만과 그의 족속까지 말살시켰다.
- (4) 이와 같이 에스더는 본서의 여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본서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 2.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에는 저자를 알만한 확실한 언급이 없다.
- (2) 그런데 히브리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모르드개'를 저자로 생각하였지만 9:20, 23; 10:2, 3에서 저자는 모르드개와 자신을 구별한다.
- (3) 그밖에도 본서의 저자에 대해 여러 이견(異見)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
- (4) 그러나 본서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저자가 바사에 거주했고, 메대와 바사의 궁중 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참조, 2:23;9:20;10:2).

## 3. ㉠ 본서가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의 내용에 예루살렘이나 가나안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 왕의 호의에 희망을 둔 사실이 기록된 것을 감안할 때 유대인이 가나안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때임을 알 수 있다.
- (2)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과 시기는 본서를 통해 바사 나라의 아하수에로(Xerxes) 왕 치하였음이 드러난다(1:1-3).
- (3) 한편 본서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치세(治世, B. C. 485-465)가 과거형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 기록 연대는 B. C. 464년 이후일 것이다.
- (4) 그런데 저자는 수산 궁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후일 수산 궁이 불타 없어진 사실(B. C. 435년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 (5) 이러한 점에서 본서의 저작 시기는 B. C. 464-436년으로 좁힐 수 있다.

## 4.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부림절(참조, ㉠11)의 내력과 그 기원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 (2) 또한 본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 (3) 즉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활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매장하기 위해 이방인들이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함정에 이방인 스스로가 빠지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 (4) 이러한 사실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역

경 중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제공한다.

5. **㉠ 본서의 정경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는 언제나 히브리 정경(The Hebrew Canon)의 일부로 인정되어 왔다.  
 (2)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이 본서의 정경적 권위를 의심했다. 그 이유는 본서가 구약의 다른 역사서보다 종교적, 애국적, 윤리적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다시 말해서 본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사랑의 정신보다는 복수심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에스더서의 정경성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본서 저자의 기록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듯하다.  
 (5) 즉 저자는 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승리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순수한 종교적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하였다.  
 (6)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비종교적 경향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함으로써 본서의 독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자 하였다.  
 (7) 따라서 본서의 정경성에 대한 의심은 삶과 신앙의 중심적 사상에 있었다기 보다는 단 순히 서술 방법과 그 형태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서의 정경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6. **㉠ 본서에 담겨져 있는 주요 사상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모르드개)를 해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살하려는 자(하만)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다.  
 (2)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에 대한 이방인의 압제는 곧 하나님 주권에의 도전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 유지해 갈 수 있었다.  
 (3) 그런데 본서에는 여호와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과 신약 성경에 본서가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달리 복수심이 가득차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윤리적 공격을 받았다.  
 (4) 그러나 본서의 내용은 그러한 윤리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경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7. **㉠ 본서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그것은 부림절이라는 축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이방의 땅에서 체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3) 다시 말해서 본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받게 될 것을 의식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의식적(ritual)인 믿음보다 삶 중심의 믿음이 그들에게 통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그러나 본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신을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한 책이다.  
 (5) 그것은 본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졌었고, 또한 본서가 그들에게 민족적, 신앙적인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8. **㉠ 본서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아하수에로 시대의 통치에 관한 신빙성 있는 기록에 의해 본서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2) 그것은 아하수에로의 재위 기간(1:1;8:9)이 그리이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Herodotus, B.C. 484-424)의 기록과 일치하고, 또한 수산 궁에 관한 묘사(1:6)도 고고학에 의하여 그 사실성이 입증되었다.
- (3) 또한 본서의 저자는 역사적 순수성을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해 명확한 연대와 페르시아 이름들을 삽입하였고, 페르시아 풍습과 궁중 생활에 대해 분명하게 묘사하였다.
- (4) 그러므로 본서가 순수한 소설이라든지 좀더 나아가 약간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 소설이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본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다.

9.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B. C. 722년경 앗수르 왕에 의해 메대의 고을로 잡혀갔다(왕하 17:6).
- (2) 그런데 이 고을들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자(B. C. 539), 느부갓네살은 일부 유대인들을 모르드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이주당한 자들은 다시 수산 동편 땅으로 옮겨졌다(2:5,6).
- (3) 그렇지만 근동(the Near East)의 각지로 흩어졌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 5만 명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 B. C. 537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다(참조, 스 2장).
- (4) 그 후 그들은 제 2의 성전을 B.C. 516년에 건축했다(스 6:15).
- (5) 본서는 제 2의 성전 건축 후 33년이 지난 아하수에로의 잔치(B. C. 483, 1:3)에서 부림절의 시작(B. C. 473)에 이르는 1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10. **㉠ 본서의 통일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는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짜여져 통일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2)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9:20-10:3의 내용이 첨가됨으로써 본서에서 통일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 (3)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은 앞에 기록된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부림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개괄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다.
- (4) 그러므로 본서가 구분됐다는 주장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본서의 첫 부분에서 나중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보아 본서의 구조는 통일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1. **㉠ 본서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림절(feast of Purim)에 대하여 설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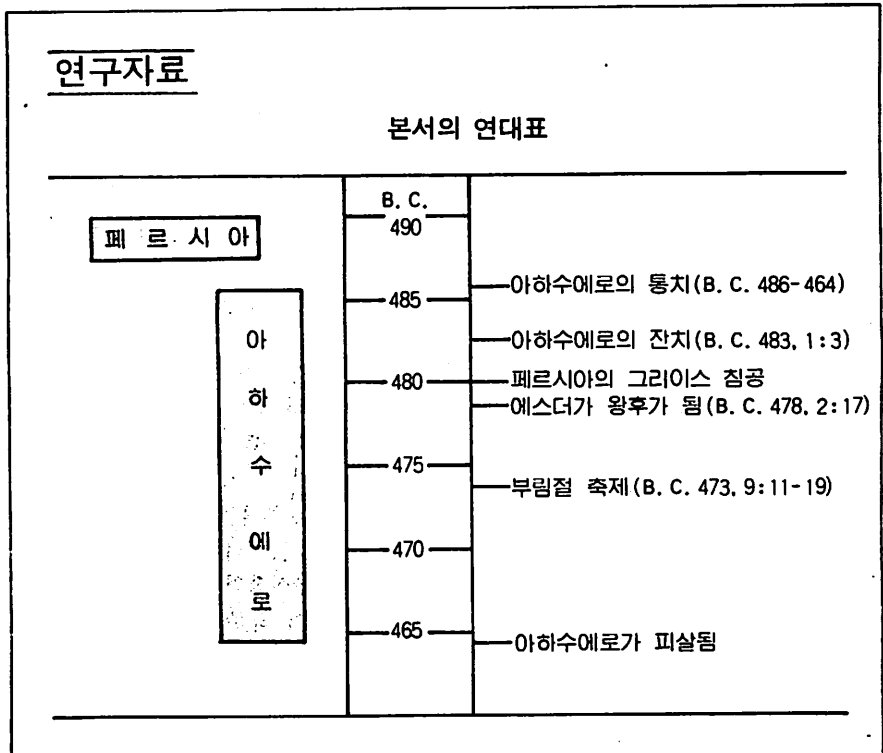
- ㉠** (1) 히브리력(曆)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 월(Adar, 태양력으로 2, 3월에 해당) 14, 15일에 거행되는 이스라엘 축제의 이름이다.
- (2) 부림절은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의 어느 책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3:7과 9:24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
- (3) 또한 이 절기는 외경(마카비하 15:36)과 요세푸스의 책에도 언급되어 있다.
- (4)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절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이 절기의 축제가 지방에 따라 거행되어서 명절에 행하는 예루살렘 순례 여행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유대 사회에 있어서 부림절은 항상 대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아달 월(12월) 13일에는 금식이 지켜졌고 이를 에스더의 절기라 일컬었다.
- (6) 그리고 그 다음날(아달 월 14일) 아침에 회중은 공식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회당에 다시 모였으며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온 회중이 하루 종일 유쾌하게 즐겼다.
- (7) 한편 이 절기의 특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다(9:19).
- (8) 그러므로 수세기에 걸친 부림절 종교 의식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12.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위기 / 1:1-3:15
- ① 와스디의 폐위 / 1:1-22
  - ② 에스더의 즉위 / 2:1-20
  - ③ 모르드개의 공로 / 2:21-23
  - ④ 하만의 흉계 / 3:1-15
- (2) 에스더의 결심 / 4:1-5:14
- ① 모르드개의 호소 / 4:1-14
  - ② 에스더의 응답 / 4:15-17
  - ③ 에스더가 베푼 잔치 / 5:1-8
  - ④ 하만이 만든 교수대 / 5:9-14
- (3)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출 / 6:1-10:3
- ① 하만의 패배 / 6:1-7:10
  - ②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개의 조서 / 8:1-17
  - ③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닥친 멸망 / 9:1-19
  - ④ 부림절의 기원 / 9:20-32
  - ⑤ 모르드개의 명성 / 10:1-3

13.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4:16).



# 제 1 장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다

단락구분 1-8 아하수어로 왕의 대연회 / 9-12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다 / 13-22 왕이 박사들의 건의에 따라 왕후를 폐위시키다

1 이 일은 아하수어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어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일백 이십 칠 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2 당시에 아하수어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3 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 지라

4 왕이 여러 날 곧 일백 팔십 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5 이 날이 다하매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6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 모석, 흑석을 간 땅에 진설하고

7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량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8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9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어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0 제 칠 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11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12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왕명을 좇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

이 불 붙는 듯 하더라

13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14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라)

15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아하수어로 왕명을 좇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16 므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어로 왕의 각 도 방백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 아하수어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18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19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를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0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무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21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므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22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 1. ㉠ 본장의 중심 되는 내용을 약술하라.

㉠ (1) 아하수어로 왕이 수산 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그의 방백과 신복들을 모았다.

(2) 그런데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이 잔치에 모인 자들에게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왕후로 하여금 그 잔치에 참석할 것을 명했으나 왕후는 이 명령을 거절했다. 이에



왕은 왕후를 폐위시켰다.

- (3) 이러한 사실로 인해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로 간택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義)가 에스더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 (4) 그러므로 본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의도는 세상 모든 사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2. **㉠**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영토의 범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1절)

- ㉠** (1) 그는 '인도에서 현재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구스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였다.
- (2) 이러한 영토는 그의 선왕들이 점령한 영토보다 더 넓은 땅이었다. 즉 다리오와 고레스는 120도(道)를 다스렸으나(단 6:1), 그는 127도를 다스렸다.
- (3) 페르시아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펠세폴리스(Persepolis) 시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아하수에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위대한 왕, 왕중의 왕, 많은 부족이 있는 지역의 왕, 저 광대한 지역의 왕'이라고 선언하였다.
- (4) 그런데 그리이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 B. C. 484-424)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리이스에 대해 전쟁(B. C. 480-479)을 일으켰다가 결국 실패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믿는 결과이다.
- (5) 즉 그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참조, 행 17:24).

3. **㉠**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에 대하여 말하라 (1절).

- ㉠** (1) 그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아하수에로스>로 '힘센 눈' 또는 '힘센 사람'이란 뜻을 갖는다.
- (2) 또한 후일 펠세폴리스(Persepolis)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해 아하수에로 왕은 힘이 강하며 여러 나라를 굴복시켜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3) 그러나 수많은 업적과 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이스 연합군과의 전투(B. C. 480-479)에서 패하였고, B. C. 465년에 죽으므로 통치의 막을 내렸다.
- (4) 아하수에로는 그토록 강하였지만 결국 최후에는 힘없는 인간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잠 18:12).

4. **㉠**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던 궁은 어디에 있었는가? (2절)

- ㉠** (1)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던 궁은 수산(Sushan)에 있었다.
- (2) 엘람(참조, 스 2:7, 31; 느 7:12)의 고대 수도였던 이곳은 현재 이란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또한 이곳은 사르디스(Sardis)로 가는 길, 루리스탄(Luristan) 산을 통하여 에크바타나(Ecbatana)로 가는 길의 통로에 위치하였다.
- (3) 그러므로 수산은 매우 번성하였으며 주변의 여러 도시들은 수산을 중심으로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에서 여러 도시의 물건들이 발굴됨으로써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도시도 결국에 가서는 망하여 폐허가 되고 말았다.
- (4) 이처럼 세사적인 번영과 번성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富)와 번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에 두어야 한다(히 11:16).

5. **㉠** 아하수에로가 그의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때는 언제인가? (3절)

- ㉠** (1)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 (2) 그런데 이 잔치 뒤에는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일으켜서 힘과 부를 더 확장시키려는 죄악된 계획이 숨어 있었다.

(3) 아하수에로의 방백과 신복은 잔치의 하객(賀客)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였지만 결국 아하수에로의 죄악된 계략에 동참하게 되었다.

(4) 이와 같이 주로 타의(他意)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악(構造惡)은 한 개인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6:13).

6. **㉠** 아하수에로 왕이 오랫동안 자신의 부와 위엄을 나타낸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왕은 180일 동안 자기 나라의 부와 위엄이赫赫(赫赫)함을 나타냈다.

(2)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집트를 속국으로 한 후 그리이스를 침공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정비했던 작업으로 자신의 방백과 신복을 불러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행사였다.

(3)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이러한 치밀한 계획을 갖고 전쟁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이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했다.

(4)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참조, 잠 19:21; 16:9)는 말씀을 깨닫게 된다.

7. **㉠** 왕은 몇 일간 잔치를 베풀었는가? 또한 잔치를 다시 베풀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1) 왕은 180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난 후 다시 7일에 걸쳐 수산 궁에 있던 대소 인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2) 그런데 ‘대소 인민’이란 일반 백성이 아니라 180일간의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3) 왕이 모든 방백들을 동원하여 다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전쟁을 일으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다.

(4) 이와 같이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은 항상 그 악한 계획을 숨기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약 1:5).

8. **㉠** 아하수에로는 잔치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는가? (8절)

**㉠** (1) 왕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지 말고 또한 마시고 싶은 만큼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

(2) 그런데 그리이스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의 주량(酒量)은 대단한 것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술의 양을 개방한 것은 저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3) 그러나 사람이 향락을 즐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긋난다. 왜냐하면 사람은 향락으로 가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이성을 잃게 되어 이웃에게 실수를 범하여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술취한 자는 그가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왕의 행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특히 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9. **㉠** 아하수에로가 주홍이 났을 때 행했던 일은 무엇인가? (10, 11절)

**㉠** (1) 아하수에로는 내시 일곱 사람에게 왕후로 하여금 면류관을 정제(整齊)하고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녀의 미모를 하객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다.

(2) 그런데 왕은 술에 취하여서 여자가 주홍이 도는 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는 페르시아의 일반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왕후를 청하였던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것은 왕후의 체통을 깎아내리는 것이었고 아내에게 무례함을 나타내는 명령이었다.

(4) 이처럼 술취함은 자신의 원치 않는 행동을 유발하여 실수를 하게 한다.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는 지혜가 없어지며 이성도 잃게 된다.

10. **㉠ 왕의 청함을 받은 왕후 와스디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 13절)**

- ㉠** (1)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을 좇지 않고 왕에게 가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난 왕은 왕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전례에 따라 규례와 법률을 아는 박사들에게 문의했다(13절).
- (2)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왕후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왕에게도 있었다. 주홍이 무르익은 분위기에 왕이 술에 취해서 왕후를 칭한 것은 그 나라의 관습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왕은 단지 불순종한 왕후를 향하여 분하게 생각했고 그 처벌 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타인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한다(참조, 렘 2:35).

11. **㉠ 왕이 왕후의 불순종에 대해 박사들에게 문의할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16절)**

- ㉠** (1) 일곱 박사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므무간(Memucan)은 왕에 대한 왕후의 불순종이 왕에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 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 (2) 왜냐하면 와스디가 공적인 자리에서 왕에게 불복종하여 많은 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 가정에서부터 전국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 (3) 이런 면에서 증직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언행이 많은 자들에게 영향이 미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참조, 약 3:1, 2).

12. **㉠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였는가? (19절)**

- ㉠** (1) 와스디로 하여금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했다.
- (2) 이것은 한 여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질서 체계를 잃어버린 무질서의 상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 (3) 이는 아하수에로의 잘못이야 어찌됐던 왕후 와스디 역시 교만하여 남편 아하수에로의 명예 거역하여 징계를 받은 것이다.
- (4) 이처럼 세상 통치자인 왕의 명령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데 하물며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조, 신 32:20)

13. **㉠ 질서의 법이 변역(變易)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므무간이 제안한 것은 무엇인가? (19절)**

- ㉠** (1) 왕후 와스디가 다시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녀의 신분이 평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역이 없게 했다.
- (2) 이것은 순종의 질서를 법률적 권위로 나타내어 지키게 함이었고 함부로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 (3) 이처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성경에도 방탕한 생활을 피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고 하였다. 질서를 지키면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한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14. **㉠ 와스디는 결국 어떤 지위를 얻게 되었는가? 또한 므무간이 이러한 처벌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므무간은 왕후의 위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고 그녀는 평민으로 살게 하도록 권의하였다.
- (2) 이것은 와스디가 다시 왕후의 위를 회복했을 경우 보복을 생각하여 므무간이 제안한 것이다. 즉 그녀에게 가해지는 벌이 왕후의 위가 계속 유지되면서 받는 것이라면 벌을 제안한 자에게 그 보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 (3)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잘못에 대한 응징에 대해 복수를 먼

저 생각한다. 또한 응징을 가할 때도 다가올 복수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게 된다.

(4) 그러나 잘못에 대한 응징을 마땅히 받고 새로운 생활을 하기 원하며 또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잘못에 대해 관대히 처신한다(참조, 17:4)면 악은 차츰 그 모습을 감출 것이다.

15. **㉠** **므무간이 와스디에 대한 왕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20절)**

- ㉠** (1) 왕의 조서를 전국 각 백성에게 배포하여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되도록 하고 건의했다.
- (2) 이것은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전국 각 민족의 방언으로 배포하여 이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실에 대해 왕의 징벌을 알려서 질서의 상태를 다시 찾게 하려 함이었다.
- (3) 이것은 국민이 왕후의 불순종에 영향받지 못하도록 취해진 조치(措置)였다. 불순종이 개인에게 잠깐의 이익은 되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혼란을 주기 때문이었다.
- (4) 그러므로 성도에게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질서나 법률 위에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더 커다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참조, 골 3:22).

16. **㉠** **왕이 므무간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21, 22절)**

- ㉠** (1) 왕이 므무간의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였고, 남편들로 하여금 그 집을 주관하도록 명령하였다.
- (2) 이것은 왕에게 불순종한 와스디를 폐위시키면서 동시에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질서의 상태를 저지하기 위해 남편 중심의 가정 체제를 반포(頒布)한 것이었다.
- (3) 이러한 원리는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즉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가르쳤으며 동시에 남편이 머리됨은 주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하였다(엡 5:22, 23).

**본장의 요절**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變易)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19절).

## 연구자료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은 와스디. '와스디' (Vashti)란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여인' 또는 '총애받는 자'이다. 그녀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Ahasuerus, B. C. 486-464)의 아내로서 한 때 남편과 더불어 서남 아시아 전역을 통치했던 왕비였다. 혹자는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아메스트리스 (Amestris)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와스디는 아탁사스다 2세 (Artaxerxes II, B. C. 404-359)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분명치는 않다. 일설에 의하면 그녀는 소아시아 반도 서부에 있었던 나라인 리디아 (Lydia)의 왕 알랏트 (Alyalt)의 딸이었다고 한다. 본서에는 이러한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다 준 비극적인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 그 사건은 아하수에로의 잔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하수에로는 즉위한 지 세 3년에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3절). 이 잔치는 180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연이어 왕은 수산 성내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다시 7일간의 잔치를 베풀었다 (5절). 이러한 와중에서 취기가 오른 아하수에로는 왕비 와스디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곧 잔치석에 나와 그녀의 아름다움을 뭇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었다 (11절). 그러나 그녀는 이 같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잔치석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술 취한 자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구경거리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정숙한 자세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한 그녀로서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것이기에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와스디에게서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차치 (且置)하고라도 그녀의 이름에 부합되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와스디가 조금이라도 자유 분방하고 여성 특유의 허영심을 지닌 여자였다라면 그녀는 왕의 명령을 좇아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으니 가히 진주에 비견될 만한 현숙한 여인이라 하겠다 (잠 31:10). 하지만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와스디는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은 왕의 진노를 샀으며 그 결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 (13-22절). 이후 그녀의 뒤를 이어 에스더 (Esther)가 아하수에로의 비 (妃)가 되었으니 (2:17)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 제 2 장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揀擇) 되다

단락구분 1-4 새 왕후 선택을 위한 처녀 소집 / 5-7 에스더의 내력 / 8-11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다 / 12-18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다 / 19-23 모르드개가 번역자를 밀고하다

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2 왕의 시선이 아리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 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5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8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니

9 헤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은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례히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0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11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12 처녀마다 차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 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물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13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14 처녀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5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힘을 얻더라

16 아하수에로 왕의 칠 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17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18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유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증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19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20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좃음이라

21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키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22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23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1. ㉠ 본장에 진행된 일련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 Ⓐ (1) 본장에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사건과 모르드개가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저지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궁중 일기에 기록된 사건이 나타나 있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하만의 계략에 의해 몰살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할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세밀히 일하시고 계시며 또한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미리 아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엡 1:4, 5).

2. ⓐ 화가 풀린 아하수어로 왕은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1절)

- Ⓐ (1) 화가 풀어진 아하수어로는 처벌로 인하여 다시 볼 수 없게 된 와스디를 생각하였다.
- (2) 즉 그는 자신이 취중(醉中)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이처럼 인간은 잠시 동안의 분노(忿怒)로 인해 악한 일을 저지르기 쉬우므로 성경에서는 분을 품지 말라고 하였으며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였다(참조, 잠 14:29; 16:32).

3. ⓐ 왕의 시신(侍臣)들은 번민하고 있던 왕에게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2-4절)

- Ⓐ (1) 왕의 시신들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 궁녀를 맡아 보는 내시 헤개에게 맡겨 몸치장을 시킨 다음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이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 왕후로 맞아들일 것을 제안하였다.
- (2) 이러한 시신들의 제안은 아하수어로 왕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와스디를 다시 등장시킬 경우 그들은 결국 보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 (3) 그런데 왕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 들었다. 이처럼 왕은 자신의 분(忿)에 따라 아내와 이혼하였으며 다시 자신의 허전함을 메꾸기 위하여 여자를 선택하려 했다.
- (4) 이것은 아하수어로가 여성을 한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희물로 보았음을 말해 준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동이다(참조, 창 3:21-24; 마 5:32).

4. ⓐ 본서의 인물로서 베냐민 자손으로 수산 성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5절)

- Ⓐ (1) 그는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인 모르드개였다. 그런데 모르드개를 누구의 증손, 손자, 아들로 기록한 것은 그가 특별한 자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표현법이다.
- (2) 그런데 모르드개는 바벨론의 주신(酒神) 이름 ‘마르дук’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바벨론 포로 후에 스룹바벨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B. C. 536) 모르드개와는 동명 이인(同名異人)이다.
- (3) 특히 본절에 기록된 모르드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서 구원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5. ⓐ 모르드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는가? (6절)

- Ⓐ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감으로써(B. C. 597) 모르드개를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 (2) 그런데 모르드개가 여고냐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다면 그가 아하수어로 왕의 집권 당시(B. C. 485-465)에는 매우 연로하여 동용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 (3) 그러므로 본문의 기록은 모르드개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자손으로서 포로의 신분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4) 이처럼 포로로서 생활하던 모르드개는 선민으로서의 민족심이 강했고(참조, 3:2) 포로의 생활에서 건짐을 받고자 노력했다.

6. ⓐ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하였는가? (7절)

- Ⓐ (1) 모르드개는 고아가 된 에스더를 친딸같이 양육하였다.
- (2) 그가 에스더를 이처럼 보살핀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었다.

(3)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힘없고 외로운 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救濟)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참조, 잠 11:25).

7. **㉠ 왕의 조명(詔命)이 반포되고 난 후 수산 성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8절)**

- ㉠** (1) 각 도의 관리에게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들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으므로 수산 성에는 이끌려 온 많은 처녀들이 모여 있었다.
- (2) 이처럼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할 관리들이 쾌락을 충족시키려는 왕의 명령에 맹종(盲從)하여 백성들을 배신하고 백성의 딸을 빼앗아 왕에게 보내는 행위는 인간의 윤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8. **㉠ 해개의 각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은 처녀는 누구였는가? (9절)**

- ㉠** (1) 그 처녀는 에스더였다. 즉 해개는 에스더에게 화장품이나 음식을 주었고 가장 좋은 궁에서 지내게 하였으며 그녀에게 7명의 시녀들을 주었다.
- (2) 이것은 에스더의 아름다운 몸매와 단정한 용모와 행위가 해개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해개가 에스더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인 증거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9. **㉠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에스더가 왕궁 내에 있는 후궁 처사로 이끌려 들어갈 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혈족과 인척 관계(姻戚關係)에 대해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 (2) 모르드개가 이처럼 당부한 것은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을 배타적이고 이기심이 강한 포로라고 생각하여 싫어했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아는 모르드개의 충고는 에스더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4) 그런데 모르드개의 이 같은 권면은 결코 에스더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버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던 유대인 전체와 그녀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삶의 지혜였다. 사실 지나친 자기 소개는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할 경우가 있다.

10. **㉠ 수산 궁 내에 에스더가 있는 동안 모르드개는 무엇을 하였는가? (11절)**

- ㉠** (1) 그는 에스더의 일이 궁급하여 후궁 뜰 앞을 왕래하며 에스더의 소식을 듣기 원했다.
- (2) 에스더가 후궁으로 이끌려 들어간 후 모르드개가 그녀에 대해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은 에스더를 친자식처럼 양육한 장면을 보여 준다.
- (3)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참조, 삼상 10:2).

11. **㉠ 왕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처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12절)**

- ㉠** (1) 처녀들은 열 두 달 동안 몸을 가꾸어야 했는데 여섯 달 동안은 몰약으로 몸을 다듬고 나머지 여섯 달은 부인용 향수와 화장수로 몸을 정결케 해야 했다.
- (2) 왕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하여 많은 아가씨가 이처럼 여러 날 동안 희생 당했음은 아하수에로의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말해 준다.
- (3) 이처럼 한 지도자의 부패로 인하여 결국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며 또 국력의 많은 부분이 소모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백성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12. **㉠ 왕에게 나아가는 처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13, 14절)**

- ㉠** (1) 왕에게 나아가는 처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왕의 눈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 (2) 한편 왕의 침실에 다녀온 처녀를 왕이 좋아하여 부르면 왕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궁을 지키는 첩(妾)이 되어야 했다.



(3) 따라서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둔 처녀들은 왕후 결정을 중요하게 여겨 왕에게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에스더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15절).

(4) 왜냐하면 그녀에게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13. **Q**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5절)

- A** (1)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과는 달리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해개가 정해 준 범위의 치장품만을 사용하였다.
- (2) 이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품격있게 행동한 것을 나타낸다. 곧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매료되어 설치지 않았다.
- (3) 이처럼 에스더는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도 없었고, 왕궁에 있으면서 모르드개의 가정에서 받은 율법의 교육으로 올바른 신앙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신다(참조, 빌 4:9; 딤후 3:14).

14. **Q** 에스더는 언제 왕에게 들어갔는가? (16절)

- A** (1) 아하수에로 왕 7년 시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는 ‘이끌려’ 왕에게 들어갔다.
- (2) 여기서 에스더가 ‘이끌려’ 들어갔다는 말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감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임을 시사해 준다.
- (3) 이처럼 에스더 자신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은 전혀 가지지 않은 채 단정한 나라의 왕에 대한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왕에게 나아갔다.
- (4)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의 태도와 같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2:9; 3:1).

15. **Q** 에스더는 언제 왕후가 되었는가? (16, 17절)

- A** (1) 아하수에로 왕 7년(B.C. 478) 데벳 월에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하여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다.
- (2) 이때는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인들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지 4년 후로서 헤로도투스에(Herodotus)에 의하면 그 왕이 전쟁의 실패와 폐위 문제로 후궁(後宮)의 환락에 빠져 있었던 때였다고 한다.
- (3) 이처럼 나라가 부패된 시기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새로운 왕후가 된 에스더는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과 정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이것은 부패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역사적 산물이다.

16. **Q** 에스더를 왕후로 결정한 후 왕은 무엇을 하였는가? (18절)

- A** (1) 왕은 고관 대작을 모두 초대하여 에스더 왕비 대관식을 크게 베풀고 전국 각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는 한편 세금을 면제해 주고 후한 선물을 내렸다.
- (2) 이 의식을 통해 확실히 에스더가 왕비로 되어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간히고 약하고 억눌린 자들에게도 기쁨을 주었다.
- (3) 이것은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대중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여 준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를 많이 보여 주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다(참조, 롬 5:10).

17. **Q** 모르드개가 대궐의 대문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던가? (19절)

- A** (1)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의 왕실 문지기로 일하고 있을 때 왕은 자신의 후궁을 더 모았다.
- (2) 왕이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는 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으나 이미 왕후로 에스더가 결정된 후였으므로 당시 관습이었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에 따라 후궁을 더 모았다

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 (3) 그런데 이와 같이 한 남자의 힘과 권력에 의해 여러 여자를 데리고 있을 수 있었던 관습은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습이었다(참조, 막 10:6-8).  
 (4)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을 허락하셨다(창 2:18-25).

18. **㉠ 왕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개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20절)**

- ㉠** (1)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개의 명에 따라 여전히 자기의 혈족과 인척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모르드개의 슬하에 있을 때처럼 그에게 순종했음을 뜻한다.  
 (2) 이처럼 에스더가 왕후이면서도 모르드개의 명을 계속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개를 그의 부모로 여기고 효도했음을 보여 준다.  
 (3)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한 자가 많이 있는데(참조, 창 47:12; 왕상 19:20) 이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산다(출 20:12).

19. **㉠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21절)**

- ㉠** (1) 모르드개가 궁궐의 대문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세웠다.  
 (2) 이들의 음모는 하층 계급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개인 감정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곧 실패하고 말았다.  
 (3) 이와 같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당한 섭섭함 때문에 온 사회와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한 일들을 수행하곤 한다.  
 (4) 그러나 이러한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끝내 실패하고 만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배후에 계시서 날마다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참조, 롬 13:1, 2).

20. **㉠ 아하수에로에게 모르드개가 세운 공은 무엇이었는가? (22절)**

- ㉠** (1)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미리 발견하여 반역의 사건을 저지시켰다.  
 (2) 모르드개는 반역의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3) 에스더가 이 암살 계획을 보고할 때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보고한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태도였다. 에스더의 지혜로운 처사에 따라 모르드개가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훗날 유대인 전체를 악한 음모에서 구해내는 증거물이 되었다(6, 7장).  
 (4) 이와 같이 자신의 욕심을 억제한 채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리하게 보이지만 끝내 크나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

### 본장의 요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17절).

## 제 3 장 유다인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획

단락구분 1-4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불복종하다 / 5-6 분노(忿怒)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하다 / 7-11 유다인에 대한 하만의 참소(讒訴) / 12-15 유대인 학살령(虐殺令)

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카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5 하만이 모르드개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니

6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7 아하수에로 왕 십 이 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십 이 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

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 왕이 율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온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10 왕이 반지를 손에서 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카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대로 행하라 하더라

12 정월 십 삼 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3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십 이 월 곧 아달월 십 삼 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4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아카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참소하여 바사 왕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 이유는 유대인 모르드개가 신에게 경배드릴 때에만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절을 아카인 하만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꿇지 않는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흔히 사람들은 이러한 시련이 닥쳐오면 현실과 타협하려고 생각한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는 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두 발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참조, 히 11:33-38).

### 2. ㉠ 아하수에로가 다른 모든 대신들보다 윗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1절)

- ㉠ (1) 그는 아카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이였다.

- (2)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으며(삼상 15:8) 하만은 아각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불렀다.
- (3) 한편 아말렉은 신성한 축복인 장자의 기업을 팔아먹은 에서의 후손으로서(창 36:12; 히 12:15-17) 영을 버리고 육을 취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전형이었다(참조, 출 17:14-16).
- (4) 그러므로 하만처럼 영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기업을 사모하는 유다 백성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악한 세력이다.

3. **㉠ 왕명을 어기면서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2절)**

- ㉠** (1) 유다 사람인 모르드개였다. 궁궐 대문에서 일보는 왕의 신하들이 왕명에 따라 모두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했지만 모르드개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 (2) 모르드개가 무릎 꿇어 절하지 않은 이유는 페르시아의 풍습에서 꿇어 절하는 것이 신에 대한 경의를 뜻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하만이 유다인에게 영원한 대적이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불복종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율을 지키는 행위였다(참조, 창 25:31; 출 20:1-5).

4. **㉠ 모르드개는 하만을 향해 절하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3, 4절)**

- ㉠** (1) 모르드개는 자신이 유대인이므로 하만을 향해 꿇어 절할 수 없다고 왕의 다른 신하에게 말했다.
- (2) 모르드개가 이처럼 말한 것은 하나님 외의 어느 것에도 경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신 6:13, 14)에 순종하는 신앙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출 20:2).

5. **㉠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3절)**

- ㉠** (1) 궁궐 대문에서 모르드개와 같이 직무를 담당한 다른 신하는 모르드개에게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절하라고 매일 충고했다(4절).
- (2) 동료들은 모르드개에게 왕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 (3) 그러나 이들의 권면이 세상적으로는 모르드개에게 유익할지 모르나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다.
- (4)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삼가해야 한다.

6. **㉠ 모르드개의 동료가 하만에게 모르드개를 고(告)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모르드개가 그들의 권면을 거부하자 그들은 유대인인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얼마나 버티나를 보기 위해 모르드개의 일을 하만에게 고한 것이다.
- (2) 이것은 저들이 모르드개의 신앙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모르드개의 신앙을 시험하고자 하는 행위였다.
- (3) 그러나 모르드개의 신앙은 삶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우선적이었던 것이므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신앙을 지키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참조, 히 11:6).

7. **㉠ 유대인을 멸살(滅殺) 하고자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5, 6절)**

- ㉠** (1)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음을 보고 아하수에로 치하에 있는 모르드개의 민족 전부를 멸하고자 했다.
- (2) 하만의 이와 같은 결심은 하만의 교만과 잔인성을 보여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말렉인의 오랜 반감을 노출시킨 것이다.

- (3) 이처럼 악인은 교만하여 분내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일에 동조하지 않거나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의에 찬 보복을 자행한다.
- (4) 그러나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다(시 1:5;10:4).

8. **㉠**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결정한 날은 언제였는가? (7절)

- ㉠** (1)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12년(B. C. 763) 정월(니산 월)에 제비를 뽑아 아달 월 곧 12월 13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날로 지정하였다.
- (2) 즉 하만은 학살일에 가장 적합한 날을 택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종교적 계율을 따라 제비를 뽑았던 것이다.
- (3) 한편 제비를 뽑은 결과 12월을 얻었는데 이렇게 하만이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유다인은 하만의 계획을 막아낼 수 있었다.
- (4) 이처럼 페르시아의 점술을 믿었던 하만이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시 18:2).

9. **㉠** 하만이 유다인을 참소한 내용은 무엇인가? (8절)

- ㉠** (1)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페르시아에 거하는 한 민족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며 자기들대로의 법률을 지키고 있어 왕에게 무익한 자들이라 참소했다.
- (2) 즉 하만은 한 민족이 왕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종족이라고 거짓 참소를 하였다.
- (3) 이처럼 악인들은 자신의 목적인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짓과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러한 거짓 술수는 인간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10. **㉠** 왕의 부고(府庫)에 하만이 바치겠다고 한 금액은 얼마였는가? (9절)

- ㉠** (1) 하만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왕의 허락을 얻기 위해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여 유다인을 멸하고자 시도한 것이었다. 일설에 이 1만 달란트는 유대인이 바쳐야 할 세금이라 한다. 즉 유대인의 죽음으로 인해 착오(錯誤)가 생길 날 이 세금을 하만이 대신 내겠다고는 것이다.
- (2) 그러나 하만의 이처럼 세밀하고 최선을 다한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참조, 잠 16:9).
- (3)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버리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 **㉠** 하만의 제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10, 11절)

- ㉠** (1) 왕은 인장(印章) 반지를 뽑아 유다인을 학살하려는 하만에게 주며 유다인을 하만의 손에 맡긴다고 하였다.
- (2) 그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물어 볼 만한 관심도 없었던 왕은 하만의 논리 정연한 언행에 따라 그 거짓되고 악한 참소를 검토 없이 허가했다.
- (3) 한편 아하수에로의 태만에 따라 죄없는 백성이 죽게 된 것을 볼 때에 지도자의 태도와 그가 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4) 따라서 성도는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선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2:2).

12. **㉠** 왕은 하만이 왕에게 바치겠다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는가? (11절)

- ㉠** (1)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아부에 만족하여 그가 자신에게 바치겠다고 은 1만 달란트도 하만에게 도로 주겠다고 하였다.

- (2)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아침에 의해 자신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실수였다.
- (3) 이처럼 아침하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악하여 열린 무덤처럼 많은 사람을 실수와 멸망으로 인도한다(참조, 시 5:9).

13. **㉠ 유대인 학살령에 대한 조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2절)**

- ㉠** (1) 정월 13일에 하만의 지시에 따라 왕의 비서관들이 모여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칙서(勅書)를 기록하였다.
- (2) 그런데 왕의 비서관이라 하면 학식이 있었으므로 세상의 이치(理致)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 (3) 그러므로 그들이 죄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록에 따라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묵인한 행위는 생명의 존엄보다 권력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처사라 볼 수 있다.

14. **㉠ 하만은 왕의 조서를 어떻게 전국으로 전달했는가? (13절)**

- ㉠** (1) 하만은 12월 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 남녀 노소를 모두 죽여 버리고 사유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보발군들을 시켜 전국에 전달하였다.
- (2) 이러한 공포의 조서를 전달한 역졸(驛卒)들은 본의 아니게 백성들 앞에 공포를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
- (3) 이와 같이 공포와 불안을 전달하는 자는 불행하다. 왜냐하면 불의에 대한 그들의 동조가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협을 줄 뿐 아니라 끝내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위협이 온다 해도 우리는 불의에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5. **㉠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에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5절)**

- ㉠** (1) 보발군들에 의해 법령이 나붙어 민심이 술렁일 때 하만은 왕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 (2) 이것은 하만이 왕으로 하여금 민심의 동요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만일 왕이 민심으로 인해 양심을 되찾아 하만 자신을 죽이고 그 계획을 취소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 (3) 하만은 이런 가증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자들에게도 범죄하도록 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증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앞에 어떠한 이익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탈취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적절히 공급하고 계신다(마 6:24-34).

16. **㉠ 왕과 하만이 술을 마시고 있을 당시에 수산 성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15절)**

- ㉠** (1) 조서가 수산 성에 나붙자 성은 혼란과 공포로 어지러웠는데 왕과 하만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 (2) 그런데 하만은 왕과 함께 즐기면서도 민심의 술렁임에 따라 왕이 민심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속으로는 불안해 하였다.
- (3) 이처럼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늘 초조하다(참조, 요 3:21; 고후 13:8).
- (4)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러한 양심의 소리마저 듣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임에 분명하다.

## 연구자료

###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물사(人物史)들이 그러하듯이 성경에 언급된 인물들 역시 가부장적 전통을 따른 이스라엘의 인물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남성들의 그늘에 가려 아주 미미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견과 불평 등 가운데서도 본서의 에스더를 비롯한 몇몇의 여성들은 결코 어느 남성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사역을 담당함으로써 성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인들 중에서 여성으로서의 제반 약점을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서 자신의 삶을 승리로 장식한 몇 명의 여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신앙적 결단력과 용기, 생애와 업적에 대해 간단히 고찰해 보려고 한다.

#### (1) 헌신적 효행과 신앙의 여인 룻

한갓 이방 모압의 여인에 지나지 않았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까지에는 국경을 초월한 그녀의 효성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앙심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은 후 혼자 남게 된 시모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조국과 동족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버리고 시모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할 만큼 신앙적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 주었다.

한편 그 당시의 상황과 그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방인, 더구나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은 룻의 행위가 전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준다.

이러한 그녀의 헌신적인 신앙과 삶을 통해 결국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즉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벧을 낳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며(4:17-22; 마 1:5-16) 나아가서는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룻은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유 부단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결단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였다.

#### (2) 죽음을 초월한 용기의 여인 에스더

앞에 언급한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남자와 결혼했던 반면 에스더는 유대 여인으로서 이방 남자인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원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비하일의

딸로 태어났으나 어릴 때 고아가 되어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의 양녀로 입적되었다. 그 당시 바사의 수도 수산 성의 한 관리였던 모르드개는 후일 그녀가 왕비로 추천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경위로 바사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먼저 3일간 금식기도를 드린 후 '죽으면 죽으리이다' (4:16)라는 단호한 각오로서 왕 앞에 탄원을 올렸다. 이처럼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과 용기로 인해 결국 유대인들은 모두 하만의 흉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살인극을 획책한 하만은 자신이 준비해 놓은 사형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한편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바로 이 날이 부림절의 기원이 되었다(9:26).

이러한 에스더의 행적을 통해 우리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신앙적 용기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39)는 역설적 진리를 배울 수 있다.

### (3) 복음 사역의 역군 브리스길라

일명 '브리스가' (딤후 4:19)라고도 불리우는 브리스길라는 뜻이나 에스더와 같이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서 복음 사역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 여인이었다. 한편 그녀는 남편 아글라와 함께 소개되고 있으나 항상 남편보다 그녀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 질 만큼 어느 남성 못지 않게 훌륭한 신앙과 업적을 보였다(롬 16:3; 딤후 4:19; 고전 16:19). 그녀는 당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방랑자 생활을 하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겼으며 심지어는 바울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할 만큼 헌신적인 자세와 용기를 가졌다(롬 16:4).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는 비록 화려한 영예는 누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신앙심과 복음 사역을 위한 열정은 오늘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평신도들, 특히 여성도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된다.

### (4)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이상과 같이 3명의 여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귀족이나 특권층 출신이 아니라 모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으로 자신의 난관을 극복했던 입지전적(立志傳的) 인물들이다. 특히 그들은 나약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용기와 결단력은 어느 남성에게 뒤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모든 여성들도 결코 사회적 편견이나 자신의 나약함에 굴복하지 말고 이러한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히 11장).



## 제 4 장 에스더의 각오

단락구분 1-3 모르드개를 비롯한 전유다인의 애통(哀痛) / 4-8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구원을 청하다 / 9-17 에스더가 동쪽 구원을 위해 왕에게 탄원(歎願)하기로 결심하다

1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2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곡읍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4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고하니 왕 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5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심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6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7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

8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9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10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고하기를

11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함을 내어밀어야 살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

12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하며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먼하리라 생각지 말라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15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17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조서를 보고 난 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참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그들이 조서의 내용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출 14:13; 대하 20:17).

(3)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역경 중에서도 앞날에 대해 소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50:15; 렘 16:19).

### 2. ㉠ 조서의 내용을 안 모르드개는 무엇을 행하였는가? (1절)

㉠ (1)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서 재를 온 몸과 머리에 뿌린 후 성에 나가 대성 통곡

하였다.

- (2) 이는 모르드개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위기에 대하여 슬픔과 참회와 억울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 (3) 이처럼 모르드개는 자신의 민족이 당한 위기와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타냈다.
- (4) 이렇게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한다 (마 5:4).

3. **㉠ 모르드개가 그의 걸음을 멈추어야 했던 곳은 어디였는가? (2절)**

- ㉠** (1) 굵은 베를 입고서는 대궐 문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개는 대궐 문 앞에서 그의 걸음을 멈추었다.
- (2) 왕이 유쾌한 보고를 받기 원하고 슬프거나 어려운 보고를 받기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슬픔을 알리는 베를 입고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 (3) 이것은 왕이 백성의 평범한 생활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한 증거이다. 이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선 언제나 국민의 원성(怨聲)이 높아진다.
- (4) 따라서 백성의 지도자나 사회의 지도자 격인 사람들은 백성들의 희노 애락(喜怒哀樂)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4. **㉠ 왕의 조명(朝命)에 유대인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3절)**

- ㉠** (1) 각 도에 있던 많은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痛哭)하며 금식하였고, 베를 입고 잣대미 위에 앉았다.
- (2) 이 행동은 여호와에 대한 참 회개의 행위(참조, 사 58:5)인 동시에 하만의 세력에 대한 반항의 표시였다.
- (3) 또한 이 행동은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간절한 행위였다(참조, 은 3:5-10).
- (4) 이와 같이 역경을 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의지하며 참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된다(참조, 스 8:21-23; 은 2:12).

5. **㉠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상한 모습과 애통함을 알고 무엇을 하였는가? (4절)**

- ㉠** (1) 에스더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모르드개가 걸친 굵은 베를 벗기고 보통 옷으로 갈아 입히고자 했다.
- (2) 이것은 그녀가 왕후가 되었으나 자신이 유대인임을 간직하였고, 모르드개에 대한 효심도 여전히 대단했음을 보여 준다.
- (3)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에스더처럼 세상의 명예나 지위로 인해 교만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

6. **㉠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보내 온 옷을 어떻게 하였는가? (4b절)**

- ㉠** (1)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모르드개 자신을 걱정하며 갈아 입히고자 보내 온 옷을 거절했다.
- (2) 모르드개가 에스더의 효심을 이처럼 거부한 것은 모르드개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비중을 알리기 위함이었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 이상의 것으로 민족 공동체에게 다가온 문제였다.
- (3) 여기에는 민족의 일을 먼저 하고 개인의 일은 나중으로 돌리려는 모르드개의 모습이 나타난다.
- (4) 이와 같이 개인의 안녕보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다.

7. **㉠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보냈던 자는 누구였는가? (5절)**

- ㉠** (1) 에스더는 왕의 내시로서 자신을 시중하고 있던 하닥(Hatak)을 모르드개에게 보냈다.

- (2) 그런데 에스더는 하닥이 자신의 배경을 알게 될 것인데도 하닥을 모르드개에게 보낸 것은 그만큼 그를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3) 이처럼 상전에게 신실하여 신임을 받았던 하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 서 건지시는 구원 사업에 도구로 쓰임 받아서 성경에 아름다운 자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8. **㉠** 에스더가 하닥을 모르드개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상한 모습을 취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닥을 그에게 보냈다.
- (2) 이것은 유대인으로서의 공동체(共同體) 의식이 깊은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정황(情況)을 알므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녀의 의지(意志)였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소속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형제된 자들의 애통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5).

9. **㉠**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효를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 (1) 그것은 유대인이 하만에게 멸살된다는 사실을 실감있게 전달해 주고 그 일을 중지(中止)시켜 줄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 (2)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이처럼 정황을 전달하고 준비하게 한 것은 그녀가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움의 손길 역할을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 (3) 모르드개가 이러한 확신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일찌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14절).
- (4) 이와 같이 역사는 세상 역사가들이 말하는 우연 발생적인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행 9:15).

10. **㉠** 페르시아 사회에서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 ㉠** (1) 페르시아에는 왕의 금지팡이(金笏)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 (2) 이것은 처음에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 점차 왕의 권위를 신적(神的)인 위엄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엄격히 유지했다.
- (3) 이에 따라 왕은 신적인 위엄을 갖게 되었지만 백성들과는 점점 더 두터운 벽을 형성하여 그들의 생활과는 무관한 정치를 했다.
- (4) 이와 같이 세상의 폭군들은 자신의 신변을 지키고 권위를 쌓기에 광분(狂奔)하여 자신의 백성을 혹사시킨다.
- (5) 그러나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의 주(主)이신 그리스도는 종으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참조, 빌 2:6-8).

11. **㉠** 에스더는 몇 일 동안이나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는가? (11절)

- ㉠** (1) 왕의 호출(呼出)이 없이는 누구도 자유롭게 왕실을 출입할 수 없었는데 에스더에게도 왕의 호출이 끊어진 지가 30일이나 지났다.
- (2) 이것은 조서를 취소하게 하라는 모르드개의 강권에 대해 에스더가 왕실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난감(難堪)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 (3) 이처럼 중대한 일을 위임받을 때는 주위로부터 크고 많은 장애를 받는다.
- (4)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참조, 히 11:6).

12. **㉠**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개는 어떻게 권면했는가? (13, 14절)
- ㉠** (1) 에스더가 왕후로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니 그녀가 왕이 조서를 취소하도록 주재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 (2) 모르드개의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에스더를 깨우쳐 주었고 또한 힘을 주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행하도록 하였다(16절).
- (3)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서로 붙들어 주고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참조, 살전 5:14).
13. **㉠** 모르드개는 하만의 학살 계획으로 인해 에스더가 어떻게 될 것이라 말했는가?(13절)
- ㉠** (1) 에스더가 비록 궁 안에 있는 왕후라 해도 그녀 역시 유대인이므로 죽임을 당하고 하만의 학살 계획에서 살아 남을 유대인은 아무도 없다고 모르드개는 말했다.
- (2) 이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배경하는 모르드개의 주장인데 에스더에게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 (3) 왜냐하면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심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구원받고자 하지만 공동체를 분열시켜 자신과 더불어 모두를 망하게 하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14. **㉠** 에스더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모르드개는 말했는가? (14절)
- ㉠** (1) 만일 에스더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지만 형제들을 외면한 에스더의 일가 친척은 멸하실 것이라고 모르드개는 말했다.
- (2)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왕후의 위를 주신 것은 이처럼 어려운 때에 손을 쓰기 위해 주신 것이므로 그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모르드개는 상기시켰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도구로 일할 사람을 부르신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참조, 고전 4:2).
- (4)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라할 수 있다.
15. **㉠**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에스더 자신을 생각하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줄 것을 모르드개에게 요청했다.
- (2) 한편 금식은 히브리어로 <츄>인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억제하고 온전히 기도와 봉사에 전념한다는 뜻을 지닌다(참조, 사 58:4-12).
- (3) 에스더가 이처럼 전민족적으로 단결하여 민족의 구원을 두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고 제의한 것은 그녀의 강한 신앙을 보여 준다(참조, 사 58:8).
- (4) 에스더가 민족의 구원을 두고 민족적으로 단결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민족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해 전교회적으로 힘을 합쳐 기도해야 한다.
16. **㉠** 에스더는 백성들이 금식하는 동안 어떻게 행하겠다고 말하였는가? (16절)
- ㉠** (1) 에스더는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을 위해 왕에게 탄원(歎願) 하겠다고 말했다.
- (2) 이것은 에스더가 민족과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것을 결심하고 모르드개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겸손한 모습이다.
- (3) 이러한 결심은 에스더가 자신만을 위해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민족을 구하겠다는 에스더의 공동체적 신앙을 보여 준다(참조, 창 43:14).
- (4)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와 민족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진정으로 순종해야 한다(참조, 요일 4:20).
17. **㉠**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7절)

- Ⓐ (1) 모르드개는 왕궁 앞을 떠나 에스더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2) 이것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자는 제안을 모르드개 역시 흡족하게 동의하여 그 제안대로 따랐음을 의미한다.  
 (3) 이는 모르드개가 민족을 위해 남에게 권면도 하였지만 (13, 14절) 남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보여 준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는 모르드개의 의지였다.  
 (4) 이처럼 의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했으므로 우리들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의를 위해 힘써야 한다(마 5:10).

화보자료

금홀(金笏)을 내미는 아하수어로(Xerxes) 왕. 아래의 사진은 화가 콘라드 비쯔가 그린 아하수어로 왕과 에스더의 모습이다.



바사(Persia)의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왕이 금홀을 내밀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을 당했다(11절).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서 (5:1, 2)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탄원한 에스더의 용기는 신앙적인 용기였다(14절).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민족에게 닥친 위기의 해결을 위하여 금식하며(16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후에 왕께 나아갔기 때문이다.

## 연구자료

기독교인과 애국심. 본서에는 에스더가 바사(Persia)의 왕후로 있으면서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에스더의 행위는 민족애(民族愛)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민족애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다(14, 16절). 히브리 백성들은 자기들의 민족애를 선민 의식(選民意識)과 신앙에서 찾았다. 이러한 그들의 민족애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정열을 가진 지도자였으며(출 32:32) 또한 여러 선지자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렘 14:7-15:9; 함 3:2, 13).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민족애는 그들이 단일 민족 국가였고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기에 애국심과 동일시되었다. 결국 그들의 애국심은 신앙에 바탕을 둔 소속 집단에의 충성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각 나라들의 이해(利害)가 상충(相衝)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이익만을 위하여 싸울 수는 없다. 따라서 '애국심'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本稿)는 역사를 통한 '성경적인 애국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기독교인들은 조국을 생각하기 이전에 인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심지어는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롬 13:1, 7).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조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부정과 불의를 다른 나라에 자행하는 일에는 협력할 수 없으며 협력해서도 안 된다. 즉 기독교인들의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첫번째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것은 그 다음이다. 인간의 국가와 제도에 대한 충성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류애는 아가페적인 것으로서 인간적인 동정이 아닌 신앙적 차원에서의 사랑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충성해야 할 국가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상의 국가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불쌍한 자와 억울한 자들을 돌보며 힘으로써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을 제어하고 부의 평등한 분배를 이루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참조, 삼하 20장 연구 자료 '성경적 국가관'). 국가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국가를 위한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私利私慾)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애국을 강요하며 기독교인들에게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잘못된 행위이다. 이제 일제 치하에서의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애국을 살펴보기로 하자. 3·1운동 때에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조국의 운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간접적인 설명이 된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실제로 무력 항쟁에 나서기도 하고 학교를 세워 신앙 인격을 가진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제 치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침략국인 일본을 규탄하고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즉 일본은 당시 온건한 정복자가 아니라 침략자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한반도의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강탈했으며 무자비한 탄압과 고문, 수탈을 자행했던 자들이었다. 심지어는 만주에 주둔하였던 '일본군 731부대'(일명 이시이 부대) 같은 곳에서는 생체 실험까지 행하였다.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만행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행들이었기에 당연히 그러한 악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일반인들은 '애국심'으로 표현했으며 기독교인들도 당시의 당면 과제가 압제자인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기에 역시 조국을 위한 '애국심'이라고 표현하였다. 혹자는 이러한 예를 들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애국으로 표현된 역사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너무 일방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장점도 있다. 아뭏든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기독교인들도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올바르게 못할 때에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정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벰전 2:13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독교인과 국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즉 기독교인들은 일단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있지만 그 충성은 궁극적으로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위정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전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애국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국수주의(國粹主義)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측면에서 '애국'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소속된 국가의 존속과 번영, 정의 실현 등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의 소명(召命)이 되기도 한다.

## 제 5 장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에스더

단락구분 1-4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다 / 5-8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가 왕과 대화하다 / 9-12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다 / 13-14 하만이 모르드개를 처형할 높은 나무를 세운다

1 제 삼 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궁 안뜰 끝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2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3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4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5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풀 잔치에 나아가니라

6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7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8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

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9 이 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2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풀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14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약술하라.

㉠ (1) 본장에는 왕의 총애(寵愛)를 받게 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을 초청한 내용과 왕후의 잔치에 초청받은 하만이 오만하여 모르드개를 직접 처형하겠다고 결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큰 힘을 얻는 과정이며 동시에 곧 심판을 받을 하만이 자신의 오만에 눈멀어 상황이 반전(反轉)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 내용이다.

(3) 이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기쁨을 보고 희망에 차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 위해 힘쓰는 하만은 점점 더 악의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

(4) 이처럼 의인은 그 하는 일이 행통하여 열매를 맺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참조, 시 1:3-5).

### 2. ㉠ 에스더는 금식 후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1절)

㉠ (1) 에스더는 금식이 끝나는 사흘째 되던 날 곧바로 중중 예복을 입고 왕의 거처가 바라보이는 대궐 안쪽으로 들어섰다.



- (2) 이것은 그녀가 민족을 위해 고난받고자 하는 결심으로 약정한 기도가 끝난 후 마음이 담대해져 지체하지 않고 왕궁으로 나아갔음을 말한다.
- (3)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힘과 외적인 용기를 갖추어 행동할 수 있다.
- (4) 이와 같이 우리도 의를 위해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결단과 기도를 한 후 그 결심이 약해지거나 위축되기 전에 그 결단대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3. **㉠ 왕궁의 안뜰에서 있는 에스더를 본 왕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2절)**

- ㉠** (1) 용상에 앉아 있던 왕은 왕후가 자신의 뜰에서 있는 것을 보고 반가와하여 손에 들고 있던 금홀(金笏)을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 (2) 이처럼 왕이 자신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뜰에 들어온 에스더에게 금홀을 내어민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마음도 주관하심을 알 수 있다(참조, 잠21:1; 단 4:25).
- (4)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 권력에 마음 졸이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활해야 할 것이다.

4. **㉠ 왕이 에스더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는가? (3절)**

- ㉠** (1) 왕은 에스더에게 자신의 나라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 무슨 요청이든 말하라 하였다.
- (2) 왕이 에스더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마음이 그녀에게 돌아와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참조, 막 6:22,23).
- (3) 에스더가 왕에게 이처럼 환대를 받은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막 9:23).

5. **㉠ 에스더가 왕을 위해 베푸는 것은 무엇인가? (4절)**

- ㉠** (1) 에스더는 자신의 청을 묻는 왕에게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였다.
- (2) 잔치를 베풀려는 목적은 왕과의 사소한 개인적 차원의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왕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 (3) 이처럼 에스더가 민족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모습이다.
- (4) 태만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다(참조, 계 2:10).

6. **㉠ 에스더가 잔치에 초청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4절)**

- ㉠** (1) 에스더는 잔치를 배설한 목적을 왕에게 말하며 왕과 함께 하만을 잔치에 초청했다.
- (2) 하만을 왕과 함께 초청한 이유는 왕이 그를 총애하므로 그가 없는 곳에서 조서를 취소하면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므로 하만이 함께 있는 곳에서 조서를 취소하게 하는 일은 모험이 따르는 일이었으므로(참조, 7:3-10) 에스더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였다(4:16).
- (4)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일을 수행할 때에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7. **㉠ 에스더의 초청에 왕은 어떻게 하였는가? (5절)**

- ㉠** (1)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 그와 함께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나아갔다.
- (2) 이것은 왕이 진정으로 에스더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을 말한다.

(3) 이러한 사실은 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의 누구라도 당신의 도구로 만드신다. 그러나 그 뜻을 깨닫고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8. **㉠ 잔치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 (6절)**

- ㉠** (1) 왕은 다시 에스더의 청(請)을 물으며 자신의 나라 반이라도 떼어 주겠다고 하였다.  
 (2) 왕은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그녀에게 어느 것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었다(참조, 마 6:23).  
 (3) 이와 같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무리한 발언을 할 때가 있다(마 14:6-12). 혀의 잘못된 놀림은 자신과 이웃에게 크나큰 손실을 안겨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9. **㉠ 에스더의 요구는 무엇이었는가? (7, 8절)**

- ㉠** (1) 에스더는 왕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원한다면 내일 베푸는 잔치에서 청을 말하겠으니 내일 하만과 함께 다시 나와 달라고 요구했다.  
 (2) 이것은 에스더의 청을 들어 주겠다는 왕의 다급한 질문에 대해 에스더가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답한 지혜로운 처사였다.  
 (3) 즉 이것은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때를 기다리는 행위였다. 이처럼 우리가 큰 일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참조, 잠 17:28; 사 30:15).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교만이다.

10. **㉠ 하만이 격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하만이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나오는데 대궐 문에 있던 모르드개가 자신을 보고 일어나지도, 굽신거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 이것은 구원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진 모르드개의 담대함이 사악한 하만의 기쁨을 깨뜨린 사건이다.  
 (3) 모르드개의 믿음은 이처럼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타나 사악한 하만에게 불안을 안겨 주었다.  
 (4)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빛이 던져졌기 때문이다.

11. **㉠ 하만이 분을 참고 집에 돌아와 행한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하만은 집에 돌아가자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들였다.  
 (2) 하만이 분노를 즉시 폭발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친구들과 아내와 함께 모르드개를 죽이는 일에 대해 의논하기 위함이었다(10-14절).  
 (3) 하만이 분을 즉시 폭발시키지 않은 것은 자신의 분을 더욱 사악하고 잔인하게 풀기 위한 것이었다.  
 (4) 그러나 그 계획 역시 악인의 악한 계획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멸케 하셨다(7:10).

12. **㉠ 하만은 그의 친구와 부인에게 무엇을 자랑했는가? (11, 12절)**

- ㉠** (1) 하만은 자신의 재산과 자식의 많음을 자랑했으며 관직이 어느 고관 대작보다 높으며 또한 왕과 함께 유일하게 자신이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되었고 내일 또 초창받았다고 자랑했다.  
 (2)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매우 하찮은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시 73:18).

(3) 악인은 이처럼 위험하고 파멸될 것을 자랑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랑한다(참조, 렘 9:24).

13. **㉠** 하만은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13절)

- ㉠** (1) 그것은 그가 대궐 문에서 일하는 유대인 모르드개를 보는 일이라 했다.  
 (2) 그것은 자신의 많은 자랑거리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일이었지만 하만은 모르드개로 인해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3) 세상의 부(富)와 힘[力]을 자랑하는 하만이었지만 하찮게 여기는 모르드개를 볼 때 불안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하만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잠 28:1).

14. **㉠** 모르드개를 멸할 방법에 대해 하만의 친구와 아내가 하만에게 제안했던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들은 오십 규빗(약 25m)이나 되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내일 아침 왕께 청하여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제안했다.  
 (2) 이것은 그들이 모르드개를 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하만에게와 그의 계획에 동조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3) 이처럼 악인들은 의인 치기를 피하며 또한 의인을 대적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다(참조, 시 37:12).  
 (4) 오늘날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고 분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계획을 멸절시키실 것이다.

15. **㉠**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어떠한 크기의 기둥을 세우라고 했는가? (14절)

- ㉠** (1) 그들은 높이 오십 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 모르드개를 그 위에 달아 죽이라고 했다.  
 (2) 여기서 '오십 규빗'은 약 25m나 되는 높이인데 이렇게 높은 나무에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모르드개를 수치스럽게 함으로 하만의 분을 풀어 주고자 했다.  
 (3)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자신들의 범죄를 세상에 서슴없이 알린 하만의 일파를 볼 때 악인들은 죄에 대한 혐오와 수치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6. **㉠** 하만은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4절)

- ㉠** (1) 하만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곧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한 기둥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2) 이것은 하만이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악한 일을 처리하는 교만한 모습이다.  
 (3) 이처럼 교만한 하만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참조, 잠 11:2; 18:12)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장의 요절**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6절).

## 제 6 장 명예를 얻은 모르드개

단락구분 1-3 왕이 모르드개의 공훈을 알게 되다 / 4-9 하만이 유공자에게 배울 상에 대해 말하다 / 10-11 왕이 모르드개에게 상을 내리다 / 12-14 하만이 번뇌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다

1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배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배풀지 아니하였나이다

4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5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외에 누구리요 하고

7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8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11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12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13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14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배운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하만이 모르드개의 시중인이 되어 모르드개의 명예를 높이는 반면 자신은 굴욕을 당하여 번민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것은 모르드개와 유다인을 처형하고자 노력했던 하만에게 다가온 심판의 시작으로 악인의 행사가 끝날 때에는 갯더미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3) 그러므로 악인의 계획이 치밀하여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일지라도 악인의 행사는 그 근본이 악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참조, 잠12:7).
- (4) 이처럼 악인의 종말은 파멸이므로 우리들은 그들의 그림자라도 멀리하며, 악한 행동을 경계하고 떨쳐내야만 한다.

### 2. ㉠ 모르드개가 왕의 관심을 받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1-3절)

- ㉠ (1) 잠이 오지 않는 왕은 신하로 하여금 궁중 실록을 읽게 하였는데 그것에서 자신의 암살 저지자인 모르드개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고 그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 (2) 즉 모르드개의 이름이 왕의 암살 저지자로 궁중 실록에 기록됨으로써 (2:22) 왕이 관심을 갖고 모르드개의 공훈에 대해 왕이 보답하려고 시종들에게 물었다.

- (3) 이처럼 의인의 선한 행위는 마침내 드러나 그에게 아름다운 영예를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일에 성실한 자가 누리게 될 분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잊지 않으시고 꼭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다(신 30:8-10).

3. **㉠** 왕이 궁중 실록을 읽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잠이 오지 않자 왕은 궁중 실록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신하에게 책을 읽게 했다.
- (2) 한편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은 그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신 결과였다.
- (3) 하나님께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신 것은 그에게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곧 그가 궁중 실록에서 모르드개의 업적을 발견하고 모르드개에게 상줄 것을 결심하게 하신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가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감정과 신체적인 변화를 허락하신다(참조, 창 41:1-8; 단 2:1).

4. **㉠** 모르드개에 대하여 궁중 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2, 3절)

- ㉠** (1) 그것은 대궐 수문장으로 있던 두 내시 빅단과 테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는 내용이다.
- (2) 그런데 왕에 대하여 공훈을 세운 모르드개에게 관직이나 상으로 보답하여야 함에도 왕의 무관심과 신하들의 시기로 인해 모르드개에게 아무런 보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 (3) 이처럼 세상에서의 공훈은 그 상관이 누구냐에 따라 그 대가의 보상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따라 따뜨리지 않고 상을 주신다(참조, 룖 2:12; 잠 11:18; 히 10:36).
- (4) 그러므로 우리는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경주를 열심히 하여야겠다(고전 9:25).

5. **㉠** 왕이 모르드개의 공훈을 안 후 시신들에게 물었던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왕은 모르드개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려 공을 치하했느냐고 물었다.
- (2) 사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준 사람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몰인정하고 교만한 인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 (3) 아하수에로는 이제야 비로소 인간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실행으로 옮기려 했다.
- (4)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웃의 은혜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공급하신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자세여야 한다(참조, 살전 5:18).

6. **㉠** 하만이 왕의 궁전 바깥 뜰에 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자신이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는 일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 궁전 바깥 뜰에 와서 서 있었다.
- (2) 하만이 모르드개에 대한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악행을 계획하고(5:14) 그 계획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 결심은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한 반면에 모르드개의 영예를 높이게 했다(11절).
- (3) 이것은 하만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진 것이었는데 이처럼 사람의 악행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케 하신다(시 7:14-16).

7. **㉠** 왕이 상줄 방법을 하만에게 물었을 때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6절)

- ㉠** (1) 하만은 왕이 상줄 방법을 자신에게 물었을 때 왕이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 (2) 이처럼 악인은 무슨 일이나 자기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여 자신이 교만한 자임을 만인에게 알린다.
- (3) 결국 이렇게 교만한 하만은 모르드개의 시종인이 되어(10, 11절) 그의 영예를 높여 주게 되었고 자신은 비천에 처하게 되었다(참조, 잠 16:18).
- (4)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언제나 경계해야 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한다(마 23:12).

8. **㉠** 하만은 유공자(有功者)에게 어떠한 상을 베풀라고 왕에게 간언했는가? (7-9절)

- ㉠** (1) 하만은 유공자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의 말에 태워 거리로 데리고 나가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에게 그를 시종들게 하며 ‘왕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선포하도록 간언했다.
- (2) 이것은 하만이 왕의 상을 자신이 받게 될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욕심껏 자신을 가장 존귀케 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 (3) 이러한 하만의 욕심에서 제기된 상은 모르드개에게 그대로 베풀어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욕심 있는 사람을 미워하셔서 내리신 벌이었다(참조, 잠 16:5).

9. **㉠** 하만의 제안을 들은 왕은 무엇이랴 대답하였는가? (10절)

- ㉠** (1) 왕은 하만이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즉시 시행하라고 하만에게 명했다.
- (2) 이것은 악인 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개의 시종인이 되는 극적인 왕의 선포였다.
- (3) 이렇게 함으로 악인의 욕심과 교만은 산산히 부서지게 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참조, 잠 16:18)의 성취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마 24:35).

10. **㉠** 하만이 모르드개에게 행했던 것은 무엇인가? (11절)

- ㉠** (1) 하만은 왕명에 따라 마지 못해서 모르드개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 광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왕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해주신다’고 외쳤다.
- (2) 이처럼 하만은 자신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모르드개의 시종이 되어 그의 명예를 높여 주게 된 것이다.
- (3) 자신의 죄악된 욕심만을 위해 생활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욕심을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비교, 잠 28:16).
- (4)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으려는 행복이란 참으로 순간적이며 무가치하다.

11. **㉠** 모르드개가 상을 받은 후 행했던 것은 무엇인가? (12절)

- ㉠** (1) 그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왔다.
- (2) 이는 그가 그의 자리와 임무로 돌아와 이전처럼 그의 직책에 임한 것을 나타내 준다.
- (3) 이와 같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거나 명예를 얻었을 때에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져서 자신의 직분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 (4)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임을 알아 무슨 일에도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높여 주신다.

12. **㉠** 모르드개를 시종들고 난 하만은 무엇을 하였는가? (12절)

- ㉠** (1) 그는 비통으로 가득차 번뇌(煩惱) 하면서 집으로 급히 돌아갔다.
- (2) 이는 그가 모르드개를 시종들면서 자신의 위치가 종으로 전락했던 굴욕으로 인해 자신도 조절할 수 없는 비통이 그에게 엄습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끈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만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삼상 2:3).

(4)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시 18:27).

13. **㉠** 하만의 지혜로운 친구와 그의 아내가 하만에 대해 예고한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하만이 유다 족속 모르드개에게 굴욕을 당함으로 결국 앞으로 그가 모르드개를 이기지 못하고 모르드개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2) 이것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왕에게 허락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모르드개에게 굴욕을 당하고 돌아온 사실을 근거로 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3) 이처럼 악인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므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우리의 행사가 결실 맺지 못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해야 한다(잠 12:12).

14. **㉠** 왕의 내시들이 하만에게 온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에스더가 베풀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다.  
 (2) 이 잔치는 에스더가 하만을 죽이기 위해 베풀어진 것이었으며 결국 하만은 에스더의 원대로 죽임을 당했다.  
 (3) 이는 하만이 잔치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는데 그가 계획한 의도와는 달리 생명까지 잃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악인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격이다(참조, 암5:18, 19).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의 최후는 완전한 멸망밖에 없다.

화보자료

모르드개의 행진. 아래의 사진은 18세기 독일의 작품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은혜를 입은 모르드개가 행진하는 모습을 자수로 표현한 것이다.



하만은 자신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모르드개의 행진을 호위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11절). 그러나 이는 그의 몰락의 시초였으니 정작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당사자인 하만뿐이었다(13절).

## 제 7 장 하만의 몰락과 처형

단락구분 1-4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을 말하다 / 5-6 에스더가 하만의 죄악을 고발하다 / 7-8 왕의 감정이 격양되다 / 9-10 하만이 처형되다

1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2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5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6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

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

8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결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찌더라

9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 1. ㉠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하만이 에스더의 원수로 고소당하여 그가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준비했던 50규빗(약 25m)의 높은 나무에 결국 자신이 처형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으로 악인의 행사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떠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결국 악인은 순간적으로는 크고 강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곧 파멸된다(시 1:4, 5).
- (4) 그러므로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데에 매진해야만 한다.

### 2. ㉡ 왕이 에스더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에스더가 청을 말하면 무엇이랴도 허락하겠다고 하였다.
- (2) 에스더가 청을 쉽게 요구하지 않자 왕은 마음이 조금해져서 이런 조건을 세 번씩이나 거듭 내걸었다(5:3, 6).
- (3) 에스더가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와 지혜를 기다리기 위해 쉽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더 굳게 할 수 있었다.
- (4) 이와 같이 성도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조용히 간구하며 기다려야 한다(참조, 사 30:18).



3. **㉠** 에스더가 자기 민족보다 자신을 먼저 왕에게 거론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죽으면 죽으리이다' (4:16)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가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먼저 말하고 있다.  
 (2) 왜냐하면 유다 민족을 먼저 말하면 페르시아의 다른 족속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별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왕의 귀에 거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 그러므로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운명을 먼저 말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였다.  
 (4)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로운 처사에 유익을 더해 주신다(참조, 잠 9:12).

4. **㉠**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에스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2) 에스더가 왕의 귀를 거스릴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민족을 다른 족속과 구별하여 말함은 대단한 용기였다.  
 (3) 이처럼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나타낸 것은 민족 전체와 개인인 자신을 분리하지 않는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민족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5. **㉠** 에스더는 자신과 자기 민족이 어떠한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는가? (4절)

- ㉠** (1) 에스더는 자신과 자기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屠戮)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왕에게 말하였다.  
 (2) 한편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 했던 민족이 유다 민족임을 왕에게 밝히지 않았었는데(3:8) 이제 에스더에 의해 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비밀이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참조, 욥 26:6).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은 당장에 유익이 있을지 모르나 진실은 영원한 유익이 따른다.

6. **㉠** 유다 민족이 팔림으로 인하여 왕이 손해를 본다는 뜻은 무엇인가? (4절)

- ㉠** (1) 왕이 유다 민족을 하만에게 헐 값으로 팔게 되면 유다 민족이 왕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값에 비해 왕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2) 이것은 유다 민족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타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우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생활을 할 수 있다.

7. **㉠**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에스더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5절)

- ㉠** (1) 그런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2) 아하수에는 얼마 전 하만의 악한 계획을 허락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하만은 그 대상이 유다 민족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그는 유다 민족이 죽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3:7-11).  
 (3) 이처럼 악인들은 자신의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하여 선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참조, 잠 12:5).  
 (4) 우리가 이러한 위선과 술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엡 6:10-18).

8. **㉠**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라고 했는가? (6절)

- ㉠** (1) 그는 바로 사악한 하만이며, 그가 적이며 원수라고 했다.  
 (2) 그런데 에스더가 이처럼 하만의 면전에서 그를 고발할 수 있도록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얻어진 용기 때문이었다(4:16).

(3) 그녀는 이 기회가 오기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으며 이제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왕에게 고하였다.

(4)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 지혜자의 모습이다.

(5)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적절한 때를 인도해 주신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이다.

9. **㉠** 하만은 자신에 대한 에스더의 고소(告訴)를 듣고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6절)

**㉠** (1) 그는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2) 이는 악한 하만이 강당한 에스더의 고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3) 이처럼 악인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기세가 등등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만 자신의 허물과 악한 죄가 공개될 때에는 힘을 잃고 만다.

(4) 그런 의미에서 악인은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양심의 고소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의욕을 상실하고 만다(참조, 창 3:8; 시 53:5; 잠 28:1).

10. **㉠** 왕이 왕궁 후원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1)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왕이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여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 같다.

(2) 즉 최근에 왕은 하만의 지위를 올려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으나(3:1) 하만의 반역을 알게 되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였던 것이다.

(3) 이것은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했던 왕의 실수였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믿던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가 있다(참조, 시 27:10).

(4)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마땅히 의뢰할 분이다(참조, 욥 8:14, 15; 요 6:35, 69).

11. **㉠** 왕이 자리를 떠난 후 하만은 에스더에게 어떻게 하소연하였는가? (7절)

**㉠** (1) 하만은 왕이 자신에게 화(禍)를 내릴 줄 알고 에스더에게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간청하였다.

(2) 얼마 전만해도 살기가 등등하여 모르드개를 죽일 방법을 모색하던 하만이 이제는 비참하게 되어서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악인의 위엄과 명예는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이 될 뿐이며 언젠가는 빼앗기게 될 가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과 명령에 근거하여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12. **㉠** 왕이 술 자리에 돌아왔을 때 왕의 눈에는 하만이 어떻게 비쳐졌는가? (8절)

**㉠** (1) 하만이 잔치상의 의자에 엎드려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왕은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이처럼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 주기를 요청한 행동이 오히려 죽음을 초래하였다.

(3) 그래서 성경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자에게는 모든 상황이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참조, 시 69:22).

13. **㉠** 왕의 호롱이 떨어지자 왕의 신하들은 하만을 어떻게 하였는가? (8절)

**㉠** (1)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2) 죄인의 얼굴을 싸매는 것은 곧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인으로 더 이상 밝은 세상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이처럼 죄의 삶으로 인하여 하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당연하다(약 1:15).

(4)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엡 2:7).

14. **㉠ 왕에게 하만이 세운 나무에 대하여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9절)**

- ㉠** (1) 내시 중의 한 사람인 하르보나는 하만이 왕에게 공훈을 세운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높이 오십 규빗의 나무를 그의 집에 세워 두었다고 왕에게 고(誥)하였다.  
 (2) 이것은 하르보나가 의를 행하던 모르드개를 좋게 생각하고 하만의 계획을 옹지않게 여겨서 하만의 흉계를 왕에게 고한 것이었다.  
 (3) 하르보나의 이와 같은 진술은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해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참조, 왕상 19:14-18).  
 (4) 따라서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느끼는 외로움은 진정한 외로움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곳에는 성령과 의를 바라는 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15. **㉠ 왕의 노가 그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모르드개를 죽이려 세워 두었던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자 왕은 노를 풀었다.  
 (2) 이것은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아 처형하겠다는 하만의 모든 악행이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악인의 말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정하여 악인은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의인 모르드개는 영예를 얻게 된 것이다.  
 (4) 우리도 모르드개와 같이 의를 이루기 위해 힘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에게만 주시는 면류관을 얻어야겠다.

16. **㉠ 본장의 사건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 (1) 악인 하만이 교만하여 의인 모르드개에게 악행을 가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반전(反轉)되어 그 자신에게 돌아가 파멸되고 말았다.  
 (2) 이것은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악한 일을 계획하지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참조, 사 5:20)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점점 더 벌리어 놓는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3) 그래서 교만한 악인은 악행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 패망의 길로 쓸다름치는 것이다(참조, 잠 16:18).  
 (4) 반면에 항상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위로와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본장의 요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3절).

## 제 8 장 유다인의 기쁨

단락구분 1-2 모르드개가 대신(大臣)으로 통용되다 / 3-8 에스더가 동족의 구원을 허락받다 / 9-14 왕이 유다인의 보호 조서를 선포하다 / 15-17 유다인의 환희

1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개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2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3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가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혼을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5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가 사람 함드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소서

6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7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9 그때 시완월 곧 삼 월 이십 삼 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개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일백 이십 칠 도 유대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 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10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11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 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십 이 월 십 삼 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4 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15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걸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대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을 약술하라.

㉠ (1) 본장에는 에스더가 하만의 재산을 얻었고 모르드개가 최고의 대신(大臣)이 되었으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치려던 적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신 아름다운 장면들이다.

(3)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을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결과 당신의 이름

이 이방 백성들 중에서 높이 드러나게 하셨다(참조, 출 14:13; 시 37:20; 54:7; 사 25:9).

- (4)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악한 세상의 횡포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참조, 요 16:33).

2. **Q** 에스더가 왕에게서 받은 것은 무엇인가? (1절)

- A** (1)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유다인을 박해하려던 하만의 집을 얻었다.  
 (2) 하만은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였었다(5:11). 그러나 지금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하게 되었고(7:10) 더우기 집까지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3) 이처럼 하만의 자랑이 되었던 재물이 에스더의 소유가 되었음을 볼 때 재물은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유익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참조, 딤후 6:17, 18).  
 (4) 그렇지 않고 내게 있는 재산이라고 해서 나의 배만을 채우겠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품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아집과 교만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3. **Q** 에스더가 하만의 재물을 가지게 된 사실에서 얻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A** (1) 하만은 반역자로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어 에스더에게 주어졌다.  
 (2) 즉 하만이 관직으로 있을 당시 쌓아두었던 전재산이 에스더에게 부여되어 에스더의 소유가 된 것이다.  
 (3) 이처럼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열심으로 재물을 쌓는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참조, 눅 12:16-21).  
 (4)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모으려는 데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데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겠다.

4. **Q** 모르드개가 왕으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2절)

- A** (1)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주어졌던 왕의 인장 반지를 얻은 것은 새로운 총리대신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2) 이것은 유다 민족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출 17:16; 민 25:7; 삼상 15:8, 32).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승리를 하게 하시므로써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4) 그러므로 성도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자답게 강하고 담대하여야 한다(요 16:33).

5. **Q** 에스더가 왕에게 조서의 취소를 간청한 사실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3-6절)

- A** (1) 에스더는 왕이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조서를 취소하도록 하기 위해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간절히 호소하였다(3절).  
 (2) 이것은 에스더가 유다인을 멸절시키려 했던 하만은 처형시켰으나 그 음모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왕의 조서를 취소시키기 위해 호소한 것이었다.  
 (3) 악의 흔적을 깨끗이 씻어 내려는 에스더의 지혜였다. 죄악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그 뿌리에서 또 다른 죄악의 싹이 트게 된다(참조, 사 59:5; 마 27:23).  
 (4)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멸망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잔재해 있는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6. **Q** 에스더가 왕에게 제거해 주기를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3절)

- A** (1) 하만이 유다인을 처치하려고 꾸며 놓은 음모를 제거해 달라고 그녀는 왕에게 청했다.

- (2) 왜냐하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땅에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만 외에도 많이 있었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맹렬하고 악한 공격을 받을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3) 에스더가 하만이 파멸되었음에도 다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 호소함은 그녀가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하나님의 은총에 깊은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이처럼 이웃과 민족에게 깊은 사랑을 베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도 민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겠다(참조, 마 22:39).

7. **㉠ 왕의 금함을 얻은 에스더가 왕에게 청했던 것은 무엇인가? (5절)**

- ㉠** (1)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써서 들린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
- (2) 에스더가 이러한 청을 일찌기 말했음에도(7:3, 4), 또다시 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그녀가 얼마나 민족의 안전을 소원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 (3) 에스더가 확실한 대답을 얻기까지 노력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끈질긴 기도를 해야만 할 것이다(눅 18:1-8).

8. **㉠ 에스더의 청에 대해 왕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8절)**

- ㉠** (1)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고 인을 친 조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유다인들의 소견대로 왕의 이름으로 문서를 새롭게 만들어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치라고 하였다.
- (2) 이것은 왕이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 (3) 이러한 왕의 새로운 조서는 유다인을 대적들의 위협에서 구해 내는 기쁜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파멸되지 않고 구원되었을 뿐 아니라 원수를 이기게 되었다.
- (4) 이처럼 유다인이 그들의 대적에게 승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집념은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자들이다.

9. **㉠ 새롭게 작성되는 조서는 어느 문자로 쓰여졌는가? (9절)**

- ㉠** (1) 왕실의 서기관들은 모르드개가 불러 주는 내용을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하였다.
- (2) 조서에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도 기록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인의 지위가 이미 향상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참조, 1:22).
- (3)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이방 땅에서 향상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비천에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참조, 겔 34:29;36:15).
- (4)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비천해지고 불명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위신이 추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참조, 시 23:3).

10. **㉠ 조서를 각 지방으로 전달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10절)**

- ㉠** (1) 왕실에서 길러 왕의 일에 종사하며 준마(駿馬)를 타는 역졸들이었다.
- (2) 이는 모르드개가 유다인들의 근심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가급적 빨리 새롭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 행했던 조치였다.
- (3) 이러한 모르드개의 행위는 불행 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민족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기쁨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도 고통당하고 있는 자와 약한 사람들을 위해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하겠다(행 20:35).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 생활이다(약 1:27).

11. **㉠ 모르드개가 새롭게 작성한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1절)**

- Ⓐ (1)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해하려는 적들에 대해 정당 방위로 그들을 죽일 수 있으며 적들의 재물까지도 약탈할 수 있다고 조서를 꾸몄다.
- (2)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해치려는 세력들에 대해 힘을 모아 대항하고 그 세력들을 파멸하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를 굳게 하려는 것이었다.
- (3)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악인에게 이기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참조, 켈 20:14). 그러므로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은 미래의 이 같은 영광을 위해 길이 참아야 할 것이다.

12. ⓐ 유대인들이 그들의 박해자들을 멸살하도록 허락된 날은 언제인가? (12절)

- Ⓐ (1) 유대인들은 아달 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그들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었다.
- (2) 이날은 태양력의 3월 13일로서 하만이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작정한 날인데(3:13) 그 계획은 무산되고 오히려 하만과 그 추종자들이 고난받는 날로 변화하였다.
- (3) 악인은 이처럼 자신들이 세운 악한 계획에 의해 자신들 스스로가 울무에 걸려 파멸한다(잠 29:6).
-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담대히 가야 한다.

13. ⓐ 모르드개가 조서를 모든 지방, 모든 민족에게 공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날을 맞아 모든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까닭이었다.
- (2) 즉 그날이 이르기까지 유대인이 함께 단결하여 그들의 대적을 막고 파괴할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이와 같이 우리도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 힘은 우리에게서 출발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엡 6:12, 13).

14. ⓐ 모르드개와 유대인이 영화롭게 된 사실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15-17절)

- Ⓐ (1) 모르드개는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악인들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히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쁨을 얻었다.
- (2) 불과 며칠 전만해도 유대인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고 모르드개는 굵은 베를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유대인들이 영화를 얻게 된 것이다.
- (3)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공포가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신다(렘 31:13).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5. ⓐ 모르드개는 어떠한 옷을 입고 수산 성에 나타났는가? (15절)

- Ⓐ (1) 모르드개는 푸른 빛 옷감과 흰 옷감으로 만든 궁중 예복과 그 위에 붉은 모시로 만든 도포를 입고 또한 금면류관을 쓰고 나왔다.
- (2) 이처럼 모르드개가 아름답게 장식된 예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은 그가 슬픔으로 인해 굵은 베옷을 입었던 사건(6:1)과 대조적이다.
- (3) 즉 그는 백성들의 멸망을 피하는 음모로 인해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였다.

16. ⓐ 유대인이 모르드개를 보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15, 16절)

- Ⓐ (1) 유대인들에게 빛나는 영광과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 까닭이었다(16절).
- (2) 이는 하만과 그 일당들의 위협에서 구원되어 영예를 얻은 결과 얻어진 기쁨이었다.
- (3) 이들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들과처럼 기쁘게 하신다(참조, 출 15:21; 느 8:17).
- (4) 그러므로 현세의 육체적 쾌락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더 사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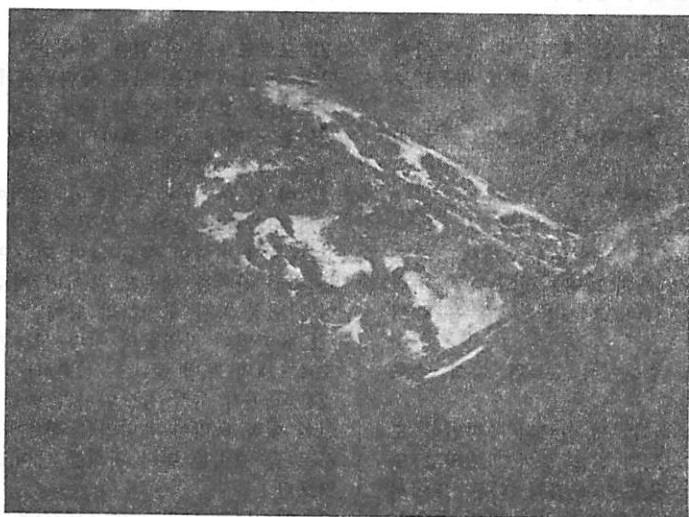
우리들은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17. **Q** 유다인을 두려워한 본토 백성이 행한 것은 무엇인가? (17절)

- A** (1) 본토인과 다른 족속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자가 많았다(3:4).  
 (2) 이방인이 유다인으로 귀화한 것은 개종자로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며 살 것을 다짐한 것을 말한다.  
 (3) 이처럼 유대인은 자신들의 생명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구원하였다.  
 (4)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므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참조, 마 5:13-16).

화보자료

반지. 아래의 사진은 수사(Susa)에서 발굴된 반지로서 그 무늬로 보아 날인(捺印)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7절). 아하수에로(Xerxes) 왕은 유대인들의 생명과 권리를 인정하는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에 자신의 반지로 인을 쳐서(10절) 그 명령을 확증했는데, 왕의 반지로 인을 치는 것은 다시 그 명령을 반복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 제 9 장 유다인들의 보복과 부림절

단락구분 1-4 페르시아 왕국에서 유다의 세력이 커지다 / 5-16 유다인들이 그 원수들을 징벌하다 / 17-19 승리를 기념하는 자축연(自祝宴) / 20-32 부림절을 제정하여 해마다 지키게 하다

1 아달월 곧 십 이 월 십 삼 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 날에

2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4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5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6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7 또 바산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8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9 바마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

10 곧 함드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1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고하니

12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13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14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15 아달월 십 사 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삼백 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

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7 아달월 십 삼 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 사 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십 삼 일과 십 사 일에 모였고 십 오 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십 사 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20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무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1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 사 일과 십 오 일을 지키라

22 이 달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23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대로 또는 모르드개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24 곧 아각 사람 함드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좇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27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

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대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가 권력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30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일백 이십 칠 도에 있는 유다 모

든 사람에게 보내어

31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32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 **㉠** 본장에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는 아달 월 곧 12월 13일이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쳤으며 또한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일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부림절을 제정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대적에게 대항하여 승리함으로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왔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 (3) 이처럼 이들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쁘고 평화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했다.
- (4)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

2. **㉠** 모든 민족들이 모르드개와 유다 민족을 두려워하게 된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4절).

- ㉠** (1)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두려워했고 전국의 관리들이 유대인을 도와 줄 만큼 유대인들의 세력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커졌다.
- (2)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수를 막으려고 단결하였으며 총리 대신인 모르드개까지도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므로 이들은 타 족속의 부러움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다.
- (4) 이들의 민족적 단결은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힘을 합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3. **㉠** 아달 월 곧 12월 13일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 (1, 5절)

- ㉠** (1) 이날에 유대인이 자신들을 멸하려는 대적을 제하여냈다.
- (2) 이는 잔인한 악인 하만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했던 날이었지만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멸절당한 것이다.
- (3) 이처럼 이들이 멸절당함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셔서 소멸케 하신 것이다(잠12:7). 이와 같이 악인의 변영은 하나님 앞에서 길지 않다.

4. **㉠**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이것은 유대인이 저희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페르시아의 전역에서 모여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유대인은 수자가 적었지만 그 단결된 힘은 많은 원수들보다 더욱 우세했다.
- (3) 이와 같이 우리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선을 토대로 단결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선을 도모할 수 있다.
- (4) 만약 그렇지 않고 닥쳐온 악에 대해서 또 다른 악으로 대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참조, 창19:4-9).

5. **㉠** 전국의 관리들이 유대인을 도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것은 그들의 상관이 모르드개였으므로 그를 두려워하여 유대인을 도운 것이다.  
 (2) 이것은 관원들이 상반되는 두 조서 사이에서 모르드개의 인망(人望)을 참작하여 지혜롭게 모르드개의 조서를 따른 것이다.  
 (3) 모르드개가 이처럼 인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섬김으로써 그의 인품이 그의 부하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4) 이처럼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和睦)하게 된다(잠 16:7).  
 (5)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모든 자에게 인망을 얻고 화목해야 하겠다.
6. Ⓞ 모르드개의 명성(名聲)은 어떻게 되었는가? (4절)  
 Ⓐ (1) 모르드개는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昌大)하여지고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까지 널리 퍼졌다.  
 (2) 즉 하나님께서 모르드개와 함께 해주셔서 모르드개를 통하여 페르시아에 번영이 임하고 (10:3), 그에 따라 모르드개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이었다(참조, 창35:5).  
 (3) 이처럼 모르드개를 통해 페르시아에 번영이 임한 사실은 믿는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온 나라에 번영이 임하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 이웃에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는 것을 예표한다(신28:6, 8).
7. Ⓞ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들과 하만의 아들들을 죽인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5-10절)  
 Ⓐ (1) 유대인들이 모든 대적들을 칼로 쳐서 75,000명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16절).  
 (2)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칼로 쳐서 죽였을지라도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음은 그들이 결코 약탈자들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3) 이처럼 정당 방위에 의한 살육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참조, 신4:42) 재물을 탐해 악한 동기로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참조, 창4:8; 49:6; 삼하13:28).  
 (4)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덧입히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삼가해야 한다. 욕심은 인간의 양심을 둔화시키고 끝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다.
8. Ⓞ 유대인들에게 도륙당하고 살육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5절)  
 Ⓐ (1) 그들은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유대인을 미워하여 괴롭혔던 사람들이다.  
 (2)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행위는 악한 소행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악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처럼 비참하게 멸절된다(시 37:18; 롬 6:21).
9. Ⓞ 유대인들에게 살육당한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라(6-10절).  
 Ⓐ (1) 하만의 아들들은 모두 10명으로 그들의 이름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야,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새, 아리대와 왜사다였다.  
 (2)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여 하만의 대를 이을 수가 없었다.  
 (3) 이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은 그 자손에까지 미쳐 그 대가 끊어진다(시 21:10).
10. Ⓞ 유대인들이 원수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1) 그 이유는 그들이 원수들을 학살하여 보복하는 데 있고 탐욕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즉 그들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에 탐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우리도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눅12:15).
- (4) 사실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는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눅9:62).

11. **㉠**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살륙한 후에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11, 12 절)

- ㉠** (1) 아하수에로 왕은 악인들이 수산 성에서 유대인의 손에 의하여 처형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난 후 에스더에게 또 무슨 청이 있는가를 물었다.
- (2) 그가 에스더의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그녀의 요청을 수락한 것은 완고하고 거만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은 당신의 백성이 못 백성의 칭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10:3).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배후에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그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

12. **㉠** 에스더가 다음 날도 조서대로 유대인들이 행할 수 있기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13 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기 위함이었다.
- (2) 한편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고 하신 아말렉 족속을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이 살륙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도였다(참조, 출17:14; 신25:19).
- (3)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받는 벌의 두려운 정도를 알 수 있다.
- (4)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다스리신다. 이것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13. **㉠** 에스더가 특별히 하만의 열 아들에 대해 무엇을 청했는가? (13절)

- ㉠** (1) 에스더는 그들의 시체를 기둥에 매달도록 왕에게 청하였다.
- (2) 이처럼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일은 페르시아의 풍습으로서 이는 처형의 수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형벌이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악인들의 말로가 어떠한 함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3) 이와 같이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못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잠 3:33).
- (4)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대신하셨다(갈 3:13).

14. **㉠** 왕은 에스더의 청원을 어떻게 하였는가? (14절)

- ㉠** (1) 왕은 에스더의 말을 허락하고 수산 성에 조서를 내림으로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게 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버의 죄가 자손에게까지 미친 것이다(출 20:5).
- (3)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자손에게까지 그 벌이 미치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15. **㉠** 아달 월 14일에 유대인들이 수산 성에서 행한 일은 무엇인가? (15절)

- ㉠** (1) 그날에 유대인들은 단결하여 수산에 있던 적들을 300명이나 더 죽였다.

- (2) 유다인들이 학살당하기로 되어 있던 13일에는 정당 방위로 적을 죽였지만 또다시 14일에 사람을 죽인 이유는 아말렉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든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욥 23:13).
- (4)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원해야 하며 동시에 그 뜻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16. **㉠ 페르시아 각 도에 있던 유다인들이 수많은 대적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유다인들은 대적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쳐 그들의 대적들을 죽였다.
- (2) 이것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는 방책이었으므로 그들은 이러한 기쁨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17-19절).
- (3)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한 유다인들은 대적을 학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확신있게 행하여야겠다.
- (4) 믿음 없이 자신의 고집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이다.

17. **㉠ 아달 월 14일에 유다인은 무엇을 행했는가? (17절)**

- ㉠** (1)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제외하고(18절) 각 도의 다른 유다인들은 부림절에 잔치를 베풀며 즐겼다.
- (2) 유다인들이 이처럼 잔치를 베풀며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원수를 물리쳤기 때문이었다.
- (3)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요 16:33).

18. **㉠ 유다인들의 새로운 명절이 된 날은 언제인가? (19절)**

- ㉠** (1) 촌촌(村村)의 유다인들은 아달 월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해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교환했다.
- (2) 이처럼 유다인들이 악인들을 참패시킨 승리의 날을 그들의 명절로 지킴은 기쁨과 하나님께의 감사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지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 (3) 즉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자신들만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자자 손손에게 그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절을 제정했던 것이다.
- (4) 이것과 같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도 영원히 존속되고 기념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격은 먼저 가정 교육에서부터 전수되어야만 할 것이다.

19. **㉠ 모르드개가 유다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였는가? (22절)**

- ㉠** (1) 모르드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했다.
- (2) 이것은 모르드개가 유다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상기시켜 주는 사건으로서 그들의 기쁨은 유대인 모두가 단합하여 얻은 것이므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한 것이다.
- (3) 그들의 기쁨이 민족적 차원의 기쁨이었던 것과 같이 신자들의 기쁨 역시 공동체적 기쁨으로 모든 자들이 함께 그에 참여하도록 늘 이웃을 살피야 한다.
- (4)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곳이다.

20. **㉠ 모르드개가 경축일을 14, 15일로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5, 22절)**

- ㉠** (1) 각 도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달 월 14일에 그들의 승리를 경축했고, 수산 성에 있는 유다인들은 그들의 승리의 경축을 15일까지 기다렸으므로 이를 통일하기 위해 이렇게 하

였다.

- (2) 이는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릴 날을 모르드개가 결정하여 통보한 것이었다.
- (3)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는데 있어 정성과 뜻을 갖고 하나로 뭉쳐 예배를 드려야 한다.

21. ㉠ '부림절'의 어원(語源)에 대해 설명하라 (26절).

- ㉠ (1) 부림절은 '제비뽑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 (2) 즉 하만이 <부르>를 통해 유대인을 멸살하는 날을 12월 13일로 정했으나(3:7) 오히려 그날에 유대인들이 하만의 일당들을 멸하게 되었던 사실(9:1)을 기념하면서부터 부림절이 유래되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죽게 되었던 그날에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다.
- (4)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한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롬8:24).

22. ㉠ 모르드개가 들켜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29절)

- ㉠ (1) 모르드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부림절을 잘 지키도록 다시 편지를 보냈다.
- (2) 이처럼 그가 부림절을 지키라고 강권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었다.
- (3) 즉 선택받은 백성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치기 위해서였다.
- (4) 따라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증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더불어 계시기 때문이다.

23. ㉠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애통해 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었는가? (31절)

- ㉠ (1) 그들은 그들 자신과 자손을 위하여 애통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2) 그런데 에스더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대적들에게 승리한 사건을 매년 기념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총을 후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었다.
- (3) 이처럼 우리는 생활 중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총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야 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신6:4-9).

24. ㉠ 본장에 기록된 사건이 나타내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유대인들은 대적들에 대한 정당 방위로 아달 월 14일에 그들을 살륙했고 수산 성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루 더 연기하여 아말렉 족속을 죽였다.
- (2) 또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유대인들은 기쁨의 축제를 드리고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 하여 매년 기념하여 지키기로 했다.
- (3)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여 감사드릴 것이며, 또 1회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매년 지키기로 한 것이다.
- (4)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여 기쁨을 얻었는데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매순간마다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만들며, 삶에 풍요를 얻게도 한다.

## 연구자료

페르시아의 수도(首都) 수사. 영어 성경 KJV를 따라 개역 성경에도 '수산'(Shushan)으로 번역되어 있는 '수사'(Susa)는 본래 엘람(Elam) 문명의 중심지로 엘람 제국(the Elamite Empire)의 고대 수도였다. B. C. 3000년대부터 왕조사(王朝史)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는 수메르(Sumer) 왕의 목록에 엘람과 그 문명의 중심지인 수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대부터 수사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엘람의 신인 '인 수시낙'(In-Shushinak)을 신봉하던 고대 종교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사는 수메르의 우르 제 3왕조 시대(the Ur-III Period)에 술기(Shulgi, B. C. 2095-2048) 왕의 침략을 받아 정복되었다. 이때 이곳에는 천문대로 사용된 점성술 사원(寺院)인 지구라트(Ziggurat)가 건립되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수메르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엘람인들은 수사를 탈환하였으며 수트룩 나훈트(Shutruk-Nahunte) 왕은 B. C. 1174년에 바벨론의 카시트 왕조(the Kassite Dynasty)를 멸절시키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수사의 왕들은 티그리스 강 서편 지역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써 한때는 방대하였던 수사 중심의 대제국을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사는 B. C. 639년에 앗수르의 앗술바니팔(Ashurbanipal, B. C. 669-633), B. C. 596년에 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Nebuchadnezzar II) 등의 침략을 받아 거의 황폐되었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발흥과 더불어 수도(首都)로 지정되어 새롭게 재건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Darius I, B. C. 522-486)는 B. C. 521년 수산에 왕궁을 건립하였는데 그 왕궁의 장엄함과 화려함은 본서(참조, 1:6)와 그 밖의 고대 문헌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한편 이란 정부의 도움을 받아 19세기 중엽부터 발굴 작업을 하던 프랑스 고고학 연구단은 이곳에서 다리오의 비문을 발견함으로써 그의 왕궁 건축과 관계된 여러 가지 생생한 자료들을 얻는 개가를 올렸다. 이 비문에는 왕궁 건축에 사용된 자재들과 그 자재들이 수집된 외국의 국명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다리오 왕이 말하노니 수사에 가장 웅장한 건물이 건축되도록 명령을 내렸고 이제 그 건물이 완성되었으니 아후라마스다(Ahuramazda) 신은 나와 내 부친 히스타스페스(Hystaspes) 및 내 국가를 보호하소서'라는 글이 부기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사의 왕궁도 한때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당하여 B. C. 324년에는 그곳에서 헬라 관리들과 페르시아 왕녀들 간의 합동 결혼식이 거행되기도 하였으나 빈번한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 결국은 중세에 이르러 멸망당하고 말았다.

# 제 10 장 아하수에로의 권세와 모르드개의 영광

단락구분 1-2 아하수에로의 행적 / 3 모르드개의 영광

1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  
을 바치게 하였더라  
2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이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팜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아하수에로가 유력한 왕이었고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 유대인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개를 통해 나라의 질서가 잡혀졌고 부강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세력에게도 멸시를 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후원으로 세상에서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  
(4) 결국 이러한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 단순히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 2. ㉠ 아하수에로 왕국이 더 부강(富強)해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1, 2절)

- ㉠ (1)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에서까지 공(貢)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정력이 강화되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을 말하는데 이는 모르드개와 같은 훌륭한 신하가 있었기 때문이다(3절).  
(2) 한편 모르드개를 통해 왕이 부강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다(참조, 창39:2, 3).  
(3)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신다(참조, 호1:7, 9).

## 3. ㉠ 모르드개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열왕 일기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2절)

- ㉠ (1) 메대와 페르시아 왕의 일기에 왕이 모르드개를 천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이것은 폭군이었던 아하수에로까지 모르드개와 화목했고 모르드개의 의로움과 위대함에 대해서 칭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本)이 되고 그들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이것은 자신의 영예를 구하는 행위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 4. ㉠ 모르드개가 만민에게 존중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것은 모르드개가 그의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또한 모든 종족들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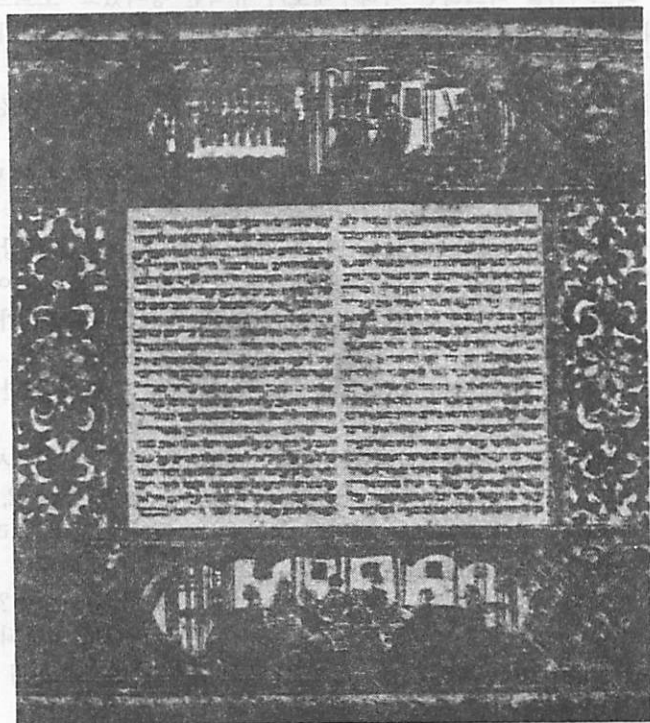


지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그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의 영예를 취하였어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사업에서 힘썼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선행을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이다(답전2:10).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웃에게 선행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야겠다.

## 화보자료

에스더의 양피지 두루마리. 아래의 사진은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기록된 에스더의 두루마리로서 현재 파리의 유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 모르드개가 정복 국가인 바사(Persia)에서 이름을 떨쳐 메대(Media)와 바사(Persia)의 열왕 일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다(3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은 다니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참조, 단 2:18, 48;5:16).